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2023. 12. 14 | 목 | 14:00-17:00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 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

1부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시상식〉

대상(나장희)
최우수상(정영미·김새움)
우수상(박지나·김수환·장지연·정혜영·김성훈·김유림)

〈사례발표〉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나장희, 대상(성공수기)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김새움, 최우수상(공로수기)

2부 제2회 자활정책포럼

〈주제발표〉

2023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이상아 선임연구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
권소일 교수(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좌 장 정해식 원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
토론자 길현종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최상미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이문수 사무총장((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기홍 사무총장((사)한국자활기업협회)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CONTENT

■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개요 1

■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사례발표 5
〈대상〉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나장희(대구광역시) 7
〈최우수상〉 우리는 함께 함으로- 김새움(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13

■ 제2회 포럼 주제발표 21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이상아 선임연구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 23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 권소일 교수(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9

■ 토론문 97
길현종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99
최상미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2
이문수 사무총장((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07
박기홍 사무총장((사)한국자활기업협회) 113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개요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근로 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층에서 소규모 가구(1~2인가구)의 증가와 중장년·노인 수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르면,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두고 있음

☑ **(자립 기반 강화)**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자활 급여 인상***, **자활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의지 촉진** 및 **생활 안정 유도**

* 자활참여자 ’20년 5.5만명 → ’22년 5.9만명, 자활급여 ’20년 대비 ’23년 12.1% 인상

☑ **(자활기업 지원 강화)** 판로지원 근거 마련*, 성장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활기업 **유지 지원, 전국 자활기업 증가**(’22년, 한국클린쿱 등 4개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보고 체계화(’21.7월 개정)

** (2년 유지율) (’20년) 63.9% → (’22년) 87.3%, (평균유지기간) (’20년) 6.5년 → (’22년) 7.5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에 대한 심층적·종합적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함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으로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자료 생산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

○ 이번 자활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현장과 학계, 중앙부처에 공유하고,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자활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보건복지부 2023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 공모 계획에 따라, 자활 및 공로 수기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포럼과 함께 진행하고자 함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4:00 ~ 17:00

○ 주관/주최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장　　소 : 스페이스살림 B1 다목적홀(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3 세부일정

시간		진행내용	담당자
1부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14:00~ 14:02	2’	ㅇ 개회 -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4:02~ 14:10	8’	ㅇ 인사말	김영아 과장(보건복지부) 정해식 원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
14:10~ 14:25	15’	ㅇ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수기 시상식 〈수상자〉 -우수상 : 박지나, 김수환, 장지연, 정혜영, 김성훈, 김유림 -최우수상 : 정영미, 김새움 -대상 : 나장희	〈시상자〉 원장상 : 정해식 원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장관상 : 김영아 과장(보건복지부)
14:25~ 14:50	25’	ㅇ 수상작 사례발표 〈대상 수상작-성공수기〉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발표자〉 나장희(대구광역시)
		〈최우수상 수상작-공로수기〉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김새움(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14:50-15:00 휴식1 (10’)			

2부 제2회 자활정책포럼			
15:00~ 15:50	50’	ㅇ주제발표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 이상아 선임연구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	권소일 교수(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50-16:00 휴식2 (10’)			
16:00~ 16:40	40’	ㅇ 종합토론 〈토론자〉 - 길현종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 최상미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이문수 사무총장((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박기홍 사무총장((사)한국자활기업협회)	좌장: 정해식 원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6:40~ 17:55	15’	ㅇ 질의응답	
16:55~ 17:00	5‘	ㅇ 정리 및 폐회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사례발표

<대상>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나장희 대구광역시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셨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누구보다 고지식했고 가부장적이었다. 더군다나 평소 그의 취하지 않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적이었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 그를 위해 나의 할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작은 점포를 내어 주셨고, 그 점포 안 작은 단칸방에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동반자살의 위협을 가하였다. 그 위협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도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렇게 난 네 살 무렵 경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왔다.

아마도 그때부터 한부모가정, 수급자라는 이름표가 함께 따라다닌 것 같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기뻤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대구대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나의 수험기간 동안 아버지는 술 문제로 감옥까지 다녀오셨다. 그 시간이 이제 와서 미안했던지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시기도 했다. 물론 반갑지 않은 지원이었지만 그 당시 나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었기에 도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법학과에 입학하여 아르바이트와 학업 생활을 병행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냈고, 장학금을 받아 아버지가 주셨던 등록금도 갚을 수 있었다. 씁쓸하지만 등록금을 갚으라는 아버지의 연락이 있었고, 역시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실망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끝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후련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왔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간병은 물론이고 어린 동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 기말고사를 치러 가던 버스에서 나는 첫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증상은 더 심해져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 병원에서 대인 기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내 나이 21살 경 나는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집안에 꼭꼭 숨어버렸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 동안 외부 세상과는 단절되어 시간을 흘려보냈고, 입대와 복학 중 어느 것 하나도 용기 내지 못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자활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가져다주셨다. 알아보니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었고, 그곳에서 일을 해나가며 입대 준비를 하라는 어머니의 뜻이었다.

나 역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자연스레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우리에게 구직활동의 기회를 주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이곳이라면 어쩌면 나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살짝 기대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로를 시작하였고, 카페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차근차근 사회 경험을 쌓아갔다.

한때 공황장애를 앓았었고, 외부 세상과 한동안 단절되어 지냈던 나로서는 사람을

상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염려도 되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일을 접해보니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나를 스스로 발견하며 자존감과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근로하는 과정에서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팀장님은 나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라며 적극 권유해 주셨다. 직접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다주며 내가 좀 더 깊이 바리스타의 길로 빠져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다. 이런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격려와 지원이 아니었다면 평생 도전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바리스타로서 자부심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쌓아가는 사이 입대 시기가 다가왔고, 나는 자연스러운 순차를 밟고자 미루지 않고 입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정서적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지속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의 상처는 군대라는 장소와 연결되면서 더더욱 증폭되었고, 결국 그 불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거기다 불면증까지 더해져 나의 건강은 급격히 약화하였고, 그렇게 현역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나는 다시 사회로 내보내졌고, 다시금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는 혹여 내가 자해라는 옳지 않은 행동을 다시 할까 봐 크게 염려하셨고, 서둘러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셨다. 그 덕분에 꽤 이른 시간 안에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 카페에 배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난 금세 안정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참 많은 걸 배웠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적 필요 요소들도 배워갈 수 있었다. 카페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 직원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바리스타로써의 필요한 역량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개인 역량교육에도 참여하며 나를 좀 더 다지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들도 있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사람을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결코 쉽게 느껴지진 않았기에 종종 관계에서 부딪힘, 업무적인 실수, 일의 유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잘 풀어가도록 나 스스로 큰 노력을 하였고 또 곁에서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및 자활센터 관계자분들도 큰 노력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서의 1년여 근무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군 문제 해결과 학교 복학을 위해 나는 다시금 사회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하자면 내가 복학을 준비하던 시기, 근무했던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카페에 인력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사업단 팀장님이 운영 지원에 도움을 달라며 직접 연락을 주셨고, 마침 쉬는 타이밍이어서 잠깐 카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두세 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 꽤 힘겹다면 힘겨운 시간을, 또 짧지만, 꽤 임팩트 있는 근무 기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때가 가장 잊지 못할 순간들인 것 같다.

물론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업무적인 힘겨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먼저 찾아주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도 꽤 컸다. 그런 긍정적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 중 그 대상이 나일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나를 찾아준 사업단 팀장님에게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다양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가며 배울 기회가 되어주었다. 외부 취업에서라면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미리 배울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나 바리스타의 경력이 그대로 이어져 나는 현재도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니저라는 관리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나의 카페를 창업하고,

더 번창시킬 수 있는 꿈과 계획 그리고 목표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 지금 내가 근무하는 카페 대표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더 좋은 조건의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나를 뽑으셨는지 말이다. 그 답은 놀라웠다.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서의 경력이 꽤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다. 거기서 대표 직원으로 일했던 부분, 그랬기에 알 수 있었던 카페 운영관리 부분, 그런데도 절대 자만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셨다는 답변이었다. 결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화였다. 물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그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렇기에 나에게도 긍정적 상황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예전의 나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가 신기할 정도이다. 그 과정에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인연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사회교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나는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 돈을 벌면서 사회적 실무경험을 쌓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역자활센터만의 긍정적 요소이다.

나는 결국 그렇게 원했던 탈수급을 이루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 속에도 갇혀있지 않다. 그 건강한 마음으로 공장,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경험했고,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서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 또한 명확한 나의 목표도 생겼다. 나의 과거, 현재가 만나 기대되는 미래를 그려가는 중이다. 그렇기에 나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어느 것 하나도 빼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며, 결국 나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체적 목표를 말하자면, 향후 5년 동안 경력과 능력을 더 쌓아 대학병원 근처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내 최종 목표이다.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상

황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퇴보한다. 스스로 꿈을 꾸지 못하고 불행한 나날에 주저앉아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 행운을 찾기 위해 밖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가 앞으로도 나는 많은 경험을 해나갈 것이다.

혹여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처음은 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움 주는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말아라! 그것은 나에게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행운으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 나에겐 자활사업이 그 기회였고 행운이었으며, 현재는 꿈이자 목표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날갯짓해 나가보려 한다. 이 발걸음에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볼 뿐이다.

〈최우수상〉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김새움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자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진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한 통의 전화로 안부를 묻고 복지사업에 대해 안내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으나 어르신의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살면서 휘개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회복지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다. 2021년 1월,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자활센터의 자활사례 관리사였다.

자활, 기초 다지기

입사 첫날, 자활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생소하기만 했기에 자활근로 사업 지침 책자와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을 읽어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을 악화시키는 개인 차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활사례관리라고 한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업단을 돌며 참여 주민들과 상담을 시작하였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수급자가 됐는데,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빚이 꽤 많아서 못 갚고 압류 방지 통장만 쓰고 있어요.”

“옛날에 알던 형님이 자동차 산다고 명의 좀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겨서 제가 다 덤터기 쓰게 됐네요….”

“이가 너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양육하기가 쉽지 않네요. 돈도 돈인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업 실패 및 사기로 인한 부채 발생,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등 참여 주민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현재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는데, 참여 주민 대부분이 자립에 대한 의지가 꺾여있었다는 점이다.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해결, 주거 환경개선, 자녀 양육 관련 지원 등은 희망하지만, 자립은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업하면 의료급여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병원 다녀야 해서 탈락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나가면 취업 안 될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는 떨어져 있었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고 있었다. 그렇기에 경제적 자활과 동시에 정서적 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고 업무에 대한 전문

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활사례관리 기초 과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 전문과정, 자립 지원 금융복지상담 자격 과정, 강점 기반 자활사례관리 교육 등 사례관리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고 복지 자원 발굴 및 각종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보완하고자 힘썼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자녀

2021년 여름, A 씨는 자녀(충동, 폭력적인 언행,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재작년에 상담받고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아이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보여서 너무 힘드네요…."

2019년에도 A 씨의 자녀 문제 관련하여 Wee센터로 연계하였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어 종결하였으나 자녀의 행동이 다시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연계되었던 전문기관과 연락하여 현재의 A 씨의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고, 구청의 통합사례 회의의 안건으로 의뢰하여 관내의 다른 복지자원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A 씨를 지원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행정복지센터, 구청, 이 외의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하였고 Wee센터에서 A 씨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 상담, 부모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건강

하지만, A 씨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체적 건강과 심리 정서적 건강 모두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2020년 가슴에 섬유선종이 생긴 것을 건강검진으로 확인하였으나, 악성은 아니라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제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재검진을 통하여 종양의 개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술

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근무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기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체적인 문제는 3 for 1 통합지원센터의 의료비 지원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를 권하였다.

A 씨는 상담할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종양 수술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겠다고 했으나 한 달쯤 뒤 돌연 상담도 수술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팀장님, 제가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정리되면 그때 수술받든가 할게요.” 내가 건강해야 주변을 챙길 수 있다며 재차 권하여도 A 씨는 완고하였다. 그래서 건강 외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22년,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 지역 맞춤 현장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확인하였다. 반기마다 시행하는 참여 주민 자립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신청하였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공모에 선정되어 참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A씨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지만, 이미 반복되는 자녀 문제로 인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A 씨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단 담당자와 함께 계속 설득한 끝에 A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은 많이 받아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많은 위로와 힘을 받고 갑니다.” 프로그램 참여 결과, A 씨는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의 집단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자녀를 위해 빨리 자립해야겠다며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좋은 소식은 연이어 찾아왔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던 A 씨가 구청과 병원의 복지사업을 통해 수술받겠다며 수술 일정까지 잡아두었다는 것이었다. “제가 계속 망설이고 포기해서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끝까지 챙겨줘서 고마워요, 팀장님. 덕분에 수술받을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재발발 우려가 있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수술을 잘 결정했다고, 재발이 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끔 꼭 검사받으라고 독려하며 A 씨를 지지해 주었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주거

“팀장님, 혹시 집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벽지랑 장판에 곰팡이가 너무 슬어서 교체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2021년, A 씨가 벽지 및 장판에 곰팡이가 너무 슬어 아이들 기관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주거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A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자녀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이 집의 환경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저장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정리되지 않은 물품들이 집을 군데군데 채우고 있었으며 벽지나 장판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구멍 난 옷 덧대듯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문제 행동의 흔적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 구멍 난 자국이 벽지 및 책상 등 여러 곳에 보였다. 해당 내용을 구청과 공유하여 주거 관련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추천받아 정리 수납 서비스와 벽지 및 장판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센터 내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들의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였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근로

A 씨가 시간제 사업단에서 전일제 사업단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다. 자녀 양육 문제로 시간제를 선택했었지만, A 씨의 앞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자녀를 위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A 씨는 구청에서 실시했던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계기로 정리 수납 및 청소에 관심이 생겼고 관련 사업단에서의 근로 경험과 습득할 기술로 자립을 희망하였다. 사업지원팀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논의한 결과 A 씨에게 적합한 사업단에 새롭게 배치하였다.

눈앞에 닥친 문제로 갈대처럼 흔들리던 마음은 그런 상황임에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사례 관리사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던 대상자에서 동료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방역의 대상에서 정리수납의 전문가로, A 씨는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정서적 자활

A 씨와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정서적 지원임을 깨달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서 넣어둘 그릇이 없다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2023년, 자활사례관리 지역 맞춤 현장 지원사업에 '중장년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을 위한 음악 치료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신청하였고 이 사업 역시 선정되어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어 있던 참여자들이 타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해주었고 자조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었다.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울고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OO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B 씨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혼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였다. 주변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50대를 맞이한 B 씨는 음악치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론, 자활사례관리란

정서적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이 지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유관 기관의 장학금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 사례 관리사로서 보낸 시간이 3년이 다 되어 간다.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에서 권고한 자활사례 관리사 최소 자격 기준 중 하나가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인데, 올해가 지나야 겨우 최소 자격 기준에 충족된다. 그만큼 자활사례관리의 업무가 중요하며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자활사례관리는 담당자의 역량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역량 또한 함께 향상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A 씨가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였듯 나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자원 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무너진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회복시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례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을 향상할 것이다.

"팀장님, 자활센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에서 못 벗어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요!"

센터의 모든 참여자가 자활근로와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하여 이런 소감을 나눠주는 날까지 나는 자활 사례 관리사로서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제2회 자활정책포럼
주제발표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발표1**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이상아 선임연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Ⅰ. 들어가며

2022년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 가구 수는 약 169만 9천 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2,451 천 명에 달한다. 이는 ‘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수급 가구 수는 약 +64.5%, 수급자 수는 +54.9%, ’22년도 대비 수급 가구 수 +3.8%. 수급자 수 +3.9% 증가하여 17년도 이후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 증가는 ’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이 대폭 개편됨에 따른 빈곤층의 수급기회 확대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자활사업은 참여자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패러다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증거기반의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활사업의 기초자료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 3에 따라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 다변화, 대상별 맞춤형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설계 운영되기 위한 기초 조사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1차 조사 표본으로 2021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는 2차년도 조사로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2%에 해당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정서적 수준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이상아 외, 2022). 둘째, 2023년도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급유형 등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자활성과, 자활사업 만족도, 정책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표본 규모와 표본 특성을 전국 지역별 자활참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다(이상아 외, 202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를 검토하여 조사영역을 일반특성 및 수급 특성, 자활사업 참여 특성,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 주거 특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특성,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관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가족돌봄 현황, 자활사업 효과 및 만족도의 10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내용
일반 및 수급특성	- 일반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 가구 현황: 혼인상태,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 수급 현황: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
자활사업 참여특성	- 자활 참여 현황: 자활 참여기간, 지역자활센터 소재지,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평가 점수, 자활사업 참여 이유 및 적극참여 방해요인,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영역	내용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 자격증 현황: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 취득 자격증 도움 정도
경제적 상황 및 생활실태	- 소득: 가계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 자산: 총 금융자산 - 부채: 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 부담 인지 정도 - 지출(월평균): 월평균 생활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3순위), 소비생활별 필요 생활비(주관적 최저 생계비)
주거	- 주거 현황: 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 - 주거 환경: 주거 안정성(거주 가능 기간), 주거 환경
건강	-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제공자,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 정도 -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BSI-18), 우울(PHQ-9), 삶의 만족도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경험 및 사유, 필요한 의료서비스 유형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 중단 사유 - 구직 경험: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구직 시기 - 자활사업 참여 관련 욕구: 참여 희망 업종(실제 참여 가능 업종, 조건 없을 시 희망 업종 단순 희망 업종), 원하는 자활 근로 형태(전일제/시간제) 및 이유,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 시 고려사항, 탈수급 예상시기
정서적 자활 및 웰빙	-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 웰빙: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 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가족돌봄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도 - 가족 돌봄 현황: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및 및 부담 인지 정도
자활사업 만족도	- 근로 만족도: 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 만족도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공급자 및 이용자 만족도

Ⅱ. 자활사업 참여실태 주요결과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본 조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참여자들의 전체 비율과 함께 각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 분류하여.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을 보았으며,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역량점수, 수급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2〉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5,731	100.0
성별	남성	2,517	43.9
	여성	3,214	56.1
연령	29세 이하	633	11.0
	30세 이상 39세 이하	600	10.5
	40세 이상 49세 이하	1,289	22.5
	50세 이상 59세 이하	2,013	35.1
	60세 이상	1,196	20.9
학력	무학	99	1.7
	초졸	412	7.2
	중졸	799	13.9
	고졸	2,935	51.2
	대졸	872	15.2
참여기간	1년 미만	1,802	31.4
	1년 이상 3년 이하	2,157	37.6
	3년 초과	1,772	30.9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자활역량	45점 미만	987	17.2
	45점 이상 59점 이하	2,100	36.6
	60점 이상 79점 이하	2,391	41.7
	80점 이상	253	4.4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445	60.1
	조건부수급자	1,451	25.3
	자활특례자	153	2.7
	차상위자	654	11.4
	시설수급자	28	0.5

1) 경제적 특성

참여자들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채, 소득과 지출, 과거 일 경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부채의 경우 참여자의 54.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은 40~49세, 학력은 대졸 이상이 부채가 있을 비율이 높았고 자활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43.1%), 자활역량 45점 미만과 45점 이상 59점 이하(각 44.7%),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43.3%)가 상대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부채부담 인지 정도는 평균 7.43점(11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여성일 경우, 연령은 증가할수록, 학력은 낮아질수록, 참여기간 1년 미만, 자활 역량점수 80점 이상, 자활특례자일 경우 부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들의 지출을 보고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참여자의 32.9%가 100만 원~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 이상(23.1%),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9.6%)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료품비(81.7%)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주거비(52.1%), 3위 난방비(29.1%)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식료품비 지출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생활 수준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근근이 살아가는 것에는 평균 120만 원, 그럭저럭한 생활은 평균 163만 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2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25만 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참여자의 과거 일 경험과 중단 시점에 대한 조사결과 참여자 대부분 과거 일 경험이 있었으며(74.3%), 일자리 중단 시점이 대부분 3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년 이상 된 참여자들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긴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과거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만 원 미만~201만 원 미만이 4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은 101만원 미만(18.8%)으로 매우 적은 소득을 받았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과거에 일을 중단한 사유는 1위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28.9%, 2위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1.7%), 3위는 실직(11.5%)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1순위로 참여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참여자 중 30~39세인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이 1위(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19.3%)일 경우, 고졸(13.0%), 대졸(11.4%)일 경우 특히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3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자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특성을 살펴보고자 신체적 건강은 동작의 어려움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여부 및 제공자, 건강문제로 인한 자활참여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정신건강으로는 간이 정신건강 BSI-18 척도를 활용한 신체화, 우울, 불안 점수와 PHQ-9 우울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신체적 건강의 경우, 신체적 동작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가 3.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동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69.4%로 참여자 대부분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중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1.5%의 응답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함에도 과반수 이상(59.1%)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오롯이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비율이(44.4%)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신체 건강의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참여자 중 49%는 건강문제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활특례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이 심각성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긴급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의 경우 신체화 평균 13.67점, 우울 평균 11.95점 불안 평균 12.60점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위한 PHQ-9 척도 활용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참여자(51.4%)가 우울증상이 없는 참여자(48.6%)보다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은 7.0%,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은 5.0%, 경한 증상은 13.0%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특례자는 정신건강점수와 우울점수 모두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도 5점 만점 평균 2.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상태에 관한 만족도가 2.12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에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일상생활

도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치료방안 모색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급여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3) 주거 특성

참여자들의 주거 특성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의 주거 안정성으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52.4%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당장 이주는 6.2%, 1년내에 이주는 13.3%로 나타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집의 튼튼함, 내외부 쾌적함, 안전함과 편의시설,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평균 3.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은 보통 수준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 내부의 쾌적함(3.10점)과 주변이 쾌적함(3.08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내부와 외부 쾌적함이 각 3.04점으로 각 유형 중 가장 열악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참여자들에게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특성

참여자들의 가족 및 사회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가족형태(동거인 여부, 가구원수, 동거인 형태), 돌봄 특성(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 및 부담), 사회관계(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족형태부터 살펴보자면, 참여자들의 1인 가구 비율이 4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남성 참여자(65.7%)가 여성 참여자(34.6%)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참여기간이 1년 미만, 자활 역량점수 45점 미만, 자활특례자일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

녀(62.7%)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성별이 여성(74.0%)인 경우, 연령이 40-49세(81.1%),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70.4%), 시설수급자(80.0%)일 때 상대적으로 자녀와 거주할 비율이 높아 이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자활참여가 어렵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면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4.8%가 돌봄이 필요하였으며, 1위가 노인(41.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22.8%)으로 나타났으나, 자녀 돌봄으로 초등학생(13세 미만)(21.9%)과 미취학 아동(11.3%)의 응답을 종합하면, 자녀돌봄 또한 33.2%를 차지하여 자녀 돌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돌봄을 하고 있었으며(63.5%), 이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감 또한 6.40점(10점 만점)으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돌봄부담이 6.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과거 일을 관둔 이유에서도 가족 돌봄이 큰 쿼터를 차지하였듯,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가족 돌봄의 부담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족지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4.10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3.99점).' 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있을경우 이를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의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여성 참여자(4.30점)에 비해 남성 참여자(3.85점)의 가족지지가 매우 취약하였고, 참여기간 1년 미만(3.98점), 시설수급자(3.86점)의 경우에도 가족 지지가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남성인 경우,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인 가구일 비율 또한 매우 높았기에 이들이 동거가족이 부재한 것과 더불어 가족지지 또한 낮아 지지체계 회복을 위한 개입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규범의식은 3.88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3.30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이는 앞으로의 사회참여 기회 및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 교류 기회를 늘릴 경우 충분히 사회적 자본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5) 사회서비스 이용

참여자들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과 필요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이용현황(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및 필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 관리 부분에 있어서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38.4%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47.9%)일 경우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을수록 2년 내 검진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27.5%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 1위는 비용이 부담되어서(69.1%)로 비용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로는 치과 치료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26.5%, 물리치료(관절염, 통풍 등) 25.4%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건강 외에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4.8%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만족도는 3.33점(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3.37점)이며, 노인일자리가 3.1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수급유형은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이들의 근로 역량을 향상시킬 훈련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또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사회서비스 1위는 생계비 지원(73.6%), 2위 의료비 지원(70.6%), 3위 물품지원(52.4%) 순으로 나타났으

며,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계비 지원 경험률이 가장 높았지만, 참여기간 3년 초과(72.2%), 자활특례자(79.1%)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4.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남성과 초기진입 참여자, 자활특례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의료비용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고비용인 치과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요구는 참여자들이 뽑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1위 또한 의료비 지원(4.33점, 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참여자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다수였던 결과 와도 일맥상통하여 향후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의료 관련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자활사업 참여실태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자활참여 이유와 사업단 이동경험, 자활 사업 중 구직경험과 자격증 취득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현황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자활 참여 이유 1위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51.4%), 2위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30.9%), 3위는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27.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위로는 자활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자활수익이 적어서(63.5%), 2위 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23.3%), 3위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22.7%)로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 사업단 이동 경험과 관련한 조사결과 사업단을 이동한 적이 있는 참여자는 28.7%였으며, 평균 이동 횟수는 1.52회로 나타났다. 사업단 이동 사유 1위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17.7%), 2위는 사업단의 종료(17.2%) 3위 건강이 안 좋아져서(13.8%)로 드러났다. 특히 자활기간이 길고, 자활역량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일 경우 사업단 이동 이유 1위가 사업단 종료 때문으로 전체 1위인 원하는 사업으로의 재배치보다 약 10%가량 더 높게 나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업단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구직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 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없다(76.0%)고 응답하였다. 해당 사유 1위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5.6%), 2위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4.1%), 3위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3.7%)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중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시기 1위는 6개월 미만(31.6%)으로 대부분 비교적 최근 구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활참여기간이 길고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은 자활특례자(33.3%)일 경우 구직경험이 2년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로,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도움인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개수는 평균 1.93개(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총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취득 자격증의 평균 개수가 증가하였다.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 인지 정도의 경우 평균 5.88점(10점 만점)으로 자격증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나타나 자격증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급유형 중 시설수급자가 자격증 평균 개수도 가장 많았고 도움인지 평균 점수 또한 가장 높았다.

2)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참여자의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9점(5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함(3.65점)으로 대체적으로 근로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하위영역은 자활 급여와 관련된 만족도로 유일하게 2.46점으로 2점대를 기록하여 자활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활 유형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역량점수는 60점 이상일 때 만족도 평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전반에 대해 보고자 이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2가지 하위 영역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5.01점(7점 만점)으로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공급자 만족도는 평균 5.22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각 하위 유형의 문항별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세부 문항에서는 이곳 지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5.5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곳 직원은 본인 업무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4.67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서비스 결과 세부 문항으로는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이 각 5.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이곳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4.26점)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 기간이 짧은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결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참여 기간이 오래된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접근을 통해 참여 기간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및 향후 근로 욕구

참여자들의 근로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자 자활사업 관련,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관련으로 2가지 방향의 요구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업단 업종과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사유를 조사하였고, 자활근로 종료 후 근로 요구는 취·창업 중 선호하는 유형과 취·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을 수집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원하는 사업단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실제로 참여 가능한 업종, 건강이나 사정의 제약이 없다면 참여하고 싶은 업종 3분야로 나누어, 모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유형 모두 카페·베이커리 사업단이 모두 약 30% 내외 수준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사업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나 조건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소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비율보다 실제로 참여가 가능한 비율이 약 10% 가까이 높게 나타나 실제로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이나 조건 등으로 청소사업단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자활근로 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23.7%의 참여자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4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양육 및 돌봄의 이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71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 종료 후 취·창업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종료 후 창업(29.2%)보다 대부분 취업(70.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희망 시 고려 조건 1위는 급여수준(28.5%), 2위 근로 시간(24.2%)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희망 시 고려 조건은 1위가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19.2%), 2위는 소득(19.1%)으로 나타났으나 3위는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여부(14.4%)와 4위 창업 자금 마련(14.0%) 모두 금전적인 지원에 해당하기에 취·창업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파악되었다.

4)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 ·경제적 자활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을 조사하고자 정서적 자활 수준은 자활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의 태도 변화 수준을 자활의지 변화,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변화, 자활행동 변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정서적 자활 조사 결과, 각 5점 만점에서 자활 의지 변화는 평균 3.60점, 고용 장벽 변화는 평균 3.20점, 자활 행동 변화는 평균 3.91점으로 정서적 자활을 측정하는 3가지 항목 모두 자활사업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 행동이 사업 참여 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특성별로는 자활의지와 고용장벽 변화는 참여기간이 짧고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반대로 자활 행동변화는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더 크게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성요소의 하위 영역 중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활 의지 변화는 가치와 역량(3.69점)이, 고용 장벽 변화는 인적 자본 향상정도(3.31점)가, 자활

행동변화는 근로관련행동(4.54점)이 긍정적으로 높은 변화를 이룬 요소로 확인 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관련행동 변화는 5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제적 자활 정도는 3.03점(5점만점)으로 정서적 자활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과 개인웰빙(3.24점), 자율성과 자기결정(3.22점)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2.69점)과 재정적 안정과 책임은(2.99점) 모두 3점대 이하로 나타나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Ⅲ. 심층분석: 정성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변화 주요결과

1. 분석방법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9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점수의 전체 평균이 2022년 대비 2023년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paired-sample t-test)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별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자활사업 진입 당시 최종학력, 자활사업 진입 당시 자활역량점수, 자활사업 진입 당시 수급유형,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 현재 사업단 유형, 현재 자활사업유형별로 자활효과 변화율[1]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1) 자활효과 변화율은 (2023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로 계산함

2. 정성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변화

1) 경제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경제적 자활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경제적 자활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활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수급 유형, 사업 참여기간, 사업단 유형 및 참여센터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별로 살펴보면,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0.01로 경제적인 자율성이나 자기결정 수준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및 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과 같은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과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을 확인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다른 경제적 자활 점수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은 응답자의 최종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학의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서 가족 및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이 양호해진 것으로 확인된 것에 반하여 변화율이 -0.10으로 2022년에 비

해 가족이나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증가한 다른 학력 집단 중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2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면 무학의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는 3.09로 초등학교 졸업(3.07점) 다음으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낮았으며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다른 집단과의 가족 및 개인웰빙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의 변화율은 0.07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 중 가장 큰 변화율을 보여 기본자산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점수 및 경제적 자활의 하위항목인 자유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 및 개인웰빙, 기본자산 모두 플러스 변화율을 보여 2022년 대비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 하위항목 중 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복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은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무학 집단에서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활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성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자활 성과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정성적 자활 변화율은 0.01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정서적·직업적 역량이나 행동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자활 변화율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변화율은 0.02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0.00으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였다. 2022년 정성적 자활 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이 3.69점, 여성이

3.75점으로 남성의 정성적 자활 수준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활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2023년에는 이러한 남녀의 정성적 자활 수준의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 정서적 자활지표의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자활의지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자활의지 점수의 변화율은 0.02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나 자활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의지의 하위항목인 가치역량의 변화율은 0.02, 미래전망동기부여의 변화율은 0.03, 기술과 자원활용의 변화율은 0.06, 목표지향의 변화율은 0.03으로 자활의지의 하위항목 모두에 대해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관련 기술 및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 관련 기술 및 인적자원 활용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기술과 자원활용 변화율은 0.10, 여성의 변화율은 0.0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술과 자원활용에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근로를 위한 인적자본이나 정보의 충분한지에 대한 근로장벽 점수의 변화율은 0.08로 자활의지나 자활행동에 비해 근로장벽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장벽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참여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학력 집단에서 근로장벽 변화율이 플러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졸업(0.17)과 중학교 졸업(0.20)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이 0.15, 농촌형 0.09, 도시형 0.06 순으로 변화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장벽의 하위항목인 인적자본 향상의 변화율은 0.10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정보 향상의 변화율은 0.11로 인적자본과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인적자본 향상의 경우 학력 집단별로 변화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고학력 집단인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보다 저학력 집단인 무학(0.10), 초등학교 졸업(0.20), 중학교 졸업(0.21)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저학력 집단에서 고학력 집단에 비해 인적자본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정보향상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사업단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용정보향상 변화율은 중학교 졸업이 0.26, 초등학교 졸업 0.19로 비교적 저학력 집단에서 고용정보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학력이 낮은 집단인 무학에서는 변화율이 0.00으로 확인되어 자활사업의 고용정보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이 0.16으로 다른 사업단 유형에 비해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게이트웨이의 고용정보 향상 변화율은 -0.12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고용정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특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이 자활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자활행동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행동의 하위항목 중 근로관련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생활 행동 변화율은 0.00,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0.02, 청결외모의 변화율 0.02, 건강관리행동의 변화율은 0.04로 확인되어 특히 일상생활 행동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관계 행동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단 동료나 실무자와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활사업 진입 초기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세 이하와 30대 참여자의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이 각각 0.08, 0.0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변화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관리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인 29세 이하와 30대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관리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자활사업 내 참여자 유형 발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본 조사에 따르면, 참여기간과 자활역량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자립 장애요인)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조사결과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자 특징

참여기간/ 자활역량	단기(1년이내)	장기(3년초과)
역량 낮음(59점 이하)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가족지지 적음 - 주관적 건강상태 어려움 -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 - 주거 문제 요구 - 의료서비스 경험 적음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1인가구 비중 높음 - 장기 실업 경험(8년이상) - 우울, 불안 정도 높음
역량 높음(60점 이상)	- 부채 문제 존재 - 부채에 대한 부담 높음 - 고강도 노동에 대한 두려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경험 많음	- 삶의 만족도 높음 - 사회적 자본 축적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존재 - 사업단 이동 높음 - 사회서비스(경제적 지원) 이용 경험 많음

역량이 낮고, 단기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재 진단과 만성 질환을 치료할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일상생활 지원 역시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량이 낮고, 장기참여자의 경우 우울, 불안 정도가 높은 점,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장기 실업기간의 경험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연계와 자활의지(자존감, 동기)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단으로의 배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역량이 높고, 단기참여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금융 복지 서비스 연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창업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특

징을 지니기 때문에 보다 취창업 목표를 설정하고 부족한 학력, 자격 등을 보완하는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량이 높고, 장기 참여자의 경우 취창업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취·창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연계와 적극적인 고용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 참여자 대상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요구

본 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참여자들과의 관계 문제(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23.3%로 나타난 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이웃관계가 적은 상태에서 자활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특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의 자활사업 구조상 자활사업의 구조상 “사업단” 조직 안에서 관계의 다이나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사업단 구조 내에서 참여자들의 자립유인 강화, 역량 증대를 위한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들이 단순히 사례관리 영역에서만 아닌 사업단 공동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 다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편

‘23년 10월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활사업에서 “탈수급”이라는 결과적·정량적 평가 지표외에도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자활사업이 결과적 성과에 중점을 맞춰있던 것에서 나아가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자활의지, 근로 장벽, 자활행동 등 정서적 효과에도 주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변화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22년도 실태조사와 23년도 실태조사의 중복 참여 대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2년도와 23년도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년도 평균 비교 결과, 경제적 자활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자활에 있어서는 자활행동에서 청결유지, 건강관리행동이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장벽인지에서 인적자본향상 정도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자립 장애요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이 자활사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 개인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나 교육 등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과정적 성과로써 자활 의지(가치와 역량, 미래전망동기부여, 목표지향)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자활사업은 사업단의 창업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자활사업은 게이트 웨이, 시간제 사업단, 청년자립도전단 등 다양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활사업이 변화되는 정책적 목표에 맞춰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4〉경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022년도 경제적 자활	2023년도 경제적 자활	증감	T-value
경제적 자활	3.11(0.83)	3.05(0.82)	-0.06	2.57*
자율성과 자기결정	3.33(0.86)	3.23(0.86)	-0.10	3.56***
재정적 안정과 책임	3.07(1.02)	3.01(1.00)	-0.06	1.76
가족과 개인웰빙	3.31(1.00)	3.27(0.99)	-0.04	1.34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75(0.91)	2.71(0.88)	-0.04	1.21

〈표 5〉정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022년도 정서적 자활	2023년도 정서적 자활	증감	T-value
정서적 자활(전체)		3.73(0.58)	3.71(0.57)	-0.02	0.75
	자활의지	3.65(0.79)	3.62(0.80)	-0.03	1.18
	가치와 역량	3.69(0.82)	3.66(0.83)	-0.03	1.21
	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기술과 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자활행동	3.99(0.50)	3.98(0.50)	-0.01	0.53
	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청결유지	4.02(0.75)	4.03(0.75)	0.01	-0.51
	건강관리 행동	3.85(0.83)	3.88(0.82)	0.03	-1.52
	고용장벽인지 완화	3.23(0.92)	3.24(0.86)	0.01	-0.49
	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4)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정책 실태조사 필요

22년, 23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욕구, 자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할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자활사업의 세부 개편을 통해 자활사업의 질적 향상 및 고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 침체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활사업이 나아갈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 누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양적 확장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아·최상미·오성은·고은새·양가람·김수완. 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발표2**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2)]

권소일 교수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근거와 역할을 마련한 이후 자활기업은 지난 20년 간 수급자, 차상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하는 공동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정원, 2018; 김재호, 2020; 조준용 외, 2022).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기업으로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5,000여명의 수급자, 차상위자, 취약계층이 자활기업에

2) 본 발표문은 최종보고 전 단계로 배포 및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서 종사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2년 대비 24.5% 감소한 수치이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21년 기준 창업수 76개로 최저치 기록).

이처럼 자활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계기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영역안에 포함시키며 위협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들어 자활기업의 영세한 조직규모와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자활기업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 확보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서의 정체성 모호성 등은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통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자활기업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전략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활기업 대한 심층적이고, 전국단위에서의 자활기업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부족했다. 자활기업 현재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 지형을 이해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향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경향성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자가 응답하여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자활기업 활성화 정책형성 방안에 대한 실태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활기업을 전수로 조사함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활기업의 영향(impact)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자활기업 사업보고서를 입력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초자료를 토대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문항

자활기업 실태조사를 위해 총 6가지 영역의 4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6개 영역은 자활기업 기본정보, 운영현황,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조직성과, 정책방향, 법인전환이슈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1〉 조사문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기본정보(11문항)	소재지*, 구성원(대표, 임원, 직원)*, 월급을 받는 구성원*, 그 중 취약계층*, 자활기업 설립일*, 사업장 점유형태*, 임차형태*, 자금조달 방법*, 자금 주요용도*, 자금 액수*, 자금조달시 어려운점
운영현황(6문항)	기업 생애주기*, 운영과정에서 힘든점, 판로 종류*, 판매비율*, 홍보 방법*, 홍보 미실시 이유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5문항)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연계정도*, 협력하지 않은 이유, 협의체 가입여부*, 가입협의체 이름, 네트워크 활동이유*,
조직성과(4문항)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중요 사회적가치*, 경제적성과 변화*, 사회적성과 변화*
정책방향(9문항)	최근 지원받은 제도*, 도움정도*, 필요한 지원정책*, 지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광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개발원 지원여부, 만족도, 미지원 이유, 불만족 이유
법인전환(7문항)	향후 1년뒤 계획, 개인사업자 여부, 전환고려 여부, 법인 미고려 이유, 법인 전환시 필요정책, 법인 설립이유, 법인운영 고충

주: 본 발표문에는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표시 함.

2. 조사 설계

조사대상은 2023년 4월 기준 자활기업 사업보고를 마친 자활기업 938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한다. 설문은 자활기업 대표자 혹은 자활기업을 잘 아는 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기업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달간 진행되었으며, 624개소가 응답하여 회수율 66.5%를 보였다.

〈표 2〉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자활기업 대표자(대표자 및 임원)
표본 수	자활기업 938개소
표본 설계	전수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2023년 9월 ~ 2023년 11월
회수율	624개소(66.5%)

Ⅲ. 연구결과

1. 자활기업 기본 현황

자활기업의 기본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구성원 현황, 인건비를 받는 구성원 현황, 사업장 점유형태 등을 알아보았다.

1)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624개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기업의 규모는 3-5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2020년 사이에 29.5%가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가 56.7%로 개인사업자(43.3%)보다 많으며, 업종은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생산·가공(17.5%), 배송·운전(15.4%)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소재지는 경기지역(14.6%)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3.9%)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8.8%)과 경남(8.8%)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활기업 일반적 특성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24	100.0	전체		624	100.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3	업종	생산·가공	109	17.5
	3인-5인 미만	256	41.0		집수리	135	21.6
	5인-10인 미만	163	26.1		세탁·청소	121	19.4
	10인-15인 미만	18	2.9		배송·운전	96	15.4
	15인-30인 미만	13	2.1		음식점	68	10.9
	30인 이상	10	1.6		유통·판매	48	7.7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0.8		사회서비스	32	5.1
	2010년-2015년	175	28.0		재활용·환경	8	1.3
	2016년-2020년	184	29.5		기타	7	1.1
	2020년 후	135	21.6	사업자	개인	270	43.3
소재지	서울	87	13.9		법인	354	56.7
	부산	46	7.4	강원		31	5.0
	대구	24	3.8	충북		20	3.2
	인천	35	5.6	충남(세종)		39	6.3
	광주	18	2.9	전북		55	8.8
	대전	15	2.4	전남		45	7.2
	울산	14	2.2	경북		31	5.0
	경기	91	14.6	경남		55	8.8
				제주		18	2.9

2) 자활기업 구성원

(1) 총인원

자활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은 평균 11.5명으로 대표, 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수급자 구성원은 3.7명, 비수급자 구성원은 7.8명이다. 대표(최고관리자)를 맡고 있는 수급자는 평균 1.0명, 이사는 0.7명이며, 직원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자 중에서는 대표 0.7명, 이사 0.8명, 직원 6.3명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환경 업종에서 수급자 임원(대표,이사)이 평균 2.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비수급자 임원(대표, 이사)이 4.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평균 78.1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자활기업 구성원(평균)

(단위 : 개, 명)

	구분	사례수	총인원	수급자·차상위			비수급자		
				대표	이사	직원	대표	이사	직원
	전체	624	11.5	1.0	0.7	2.0	0.7	0.8	6.3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2.0	0.7	0.9	2.0	1.1	1.4	16.1
	2010년-2015년	175	13.5	0.8	0.6	2.5	0.8	1.1	7.7
	2016년-2020년	184	7.3	1.1	0.6	2.1	0.6	0.6	2.4
	2020년 후	135	4.4	1.3	0.9	1.3	0.2	0.3	0.4
사업자	개인	270	3.6	1.2	0.2	0.9	0.6	0.1	0.6
	법인	354	17.5	0.8	1.1	2.9	0.7	1.4	10.7
업종	생산·가공	109	10.4	1.1	0.6	2.8	0.7	0.7	4.5
	집수리	135	5.9	0.6	0.7	1.1	0.8	0.9	1.6
	세탁·청소	121	9.0	1.0	0.6	1.7	0.6	0.8	4.4
	배송·운전	96	5.4	0.9	0.8	1.0	0.5	0.7	1.5
	음식점	68	3.7	1.3	0.5	0.7	0.4	0.3	0.4
	유통·판매	48	5.3	1.3	0.8	1.8	0.4	0.5	0.6

	구분	사례수	총인원	수급자·차상위			비수급자		
				대표	이사	직원	대표	이사	직원
	사회서비스	32	96.4	0.8	1.4	11.6	1.4	3.0	78.1
	재활용·환경	8	2.9	1.1	1.3	0.4	0.1	0.0	0.0
	기타	7	3.4	0.7	0.1	1.3	0.4	0.7	0.1
소재지	서울	87	12.6	1.2	0.9	1.1	0.5	0.9	8.1
	부산	46	12.2	1.1	0.4	1.6	0.5	0.4	8.2
	대구	24	8.8	1.4	0.6	1.1	0.5	0.8	4.3
	인천	35	20.0	0.5	0.7	2.5	0.9	1.2	14.2
	광주	18	5.3	1.1	0.8	0.9	0.7	0.8	1.0
	대전	15	6.1	0.9	0.7	1.7	0.5	0.3	2.0
	울산	14	6.3	1.1	0.5	1.2	0.6	0.6	2.3
	경기	91	16.6	0.9	0.9	4.2	0.6	0.9	9.0
	강원	31	14.7	0.7	0.5	0.9	0.7	1.2	10.7
	충북	20	24.6	1.4	0.9	2.1	1.3	1.3	17.7
	충남(세종)	39	15.9	0.9	0.8	5.9	0.7	1.0	6.6
	전북	55	6.6	1.1	0.5	1.3	0.7	0.6	2.6
	전남	45	5.7	0.6	0.5	1.1	0.9	0.7	2.0
	경북	31	4.3	1.0	0.6	0.7	0.6	0.5	1.0
	경남	55	6.0	0.8	0.9	0.8	0.7	1.0	1.8
	제주	18	9.7	1.1	0.9	3.0	0.6	1.4	2.7

(2) 급여를 받고 있는 구성원

현재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구성원은 평균 10.8명이며 그 중 취약계층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당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평균 5.2명에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전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평균 21.0명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16.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창업당시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현재 급여를 받는 인원이 감소한 업종은 재활용·환경으로, 4.3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급여를 받는 구성원(평균)

(단위 : 개, 명)

	구분	사례수	창업시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현재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전체	624	5.2	4.0	10.8	5.6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6.9	5.0	21.0	13.2
	2010년-2015년	175	4.4	3.5	12.8	3.6
	2016년-2020년	184	5.9	4.3	6.7	3.8
	2020년 후	135	3.6	3.3	4.0	3.3
사업자	개인	270	3.3	2.8	3.0	2.1
	법인	354	6.7	4.9	16.8	8.3
업종	생산·가공	109	8.7	5.8	9.6	5.5
	집수리	135	3.7	2.8	5.1	2.6
	세탁·청소	121	4.7	4.0	8.3	5.7
	배송·운전	96	3.7	3.4	4.9	2.7
	음식점	68	2.8	2.6	3.2	2.5
	유통·판매	48	3.9	3.5	4.9	3.4
	사회서비스	32	13.8	8.9	95.1	38.3
	재활용·환경	8	4.3	4.0	2.4	2.3
	기타	7	2.4	2.1	2.9	1.7
소재지	서울	87	3.6	3.2	12.0	4.6
	부산	46	4.8	3.8	11.6	8.0
	대구	24	4.0	3.5	7.5	4.0
	인천	35	6.7	5.1	19.5	9.5
	광주	18	4.0	3.4	4.7	2.6
	대전	15	6.3	5.3	5.8	3.3
	울산	14	3.6	3.3	5.5	3.4
	경기	91	5.5	4.4	16.0	7.4
	강원	31	4.7	3.9	14.1	9.3
	충북	20	4.2	3.4	22.7	15.4
	충남(세종)	39	14.8	8.1	15.0	8.2
	전북	55	5.0	3.6	5.9	2.3

	구분	사례수	창업시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현재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전남	45	4.1	3.5	5.2	2.8
	경북	31	2.7	2.1	3.7	1.8
	경남	55	4.0	3.6	5.3	2.8
	제주	18	4.8	3.9	8.8	5.3

3) 자활기업 사업장 점유형태

(1) 점유형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점유형태는 91.8%가 임차로 나타났다. 임차로 응답한 기업 중 69.6%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30인 이상의 자활기업 20%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전에 인증받은 오랜 기간 운영한 16.9%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차의 경우 개인사업자(68.8%)나 법인사업자(70.3%) 모두 보증금이 있으면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배송·운전 업종의 경우 무상임차인 경우가 2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사업장 점유형태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소유	임차	보증금有 월세	보증금無 월세	전세	무상 임차	기타
전체		624	8.2	91.8	69.6	11.2	4.7	9.9	4.5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3.7	96.3	72.2	10.8	2.5	11.4	3.2
	3인-5인 미만	256	8.2	91.8	69.8	11.1	4.7	8.5	6.0
	5인-10인 미만	163	11.0	89.0	67.6	11.7	6.9	9.7	4.1
	10인-15인 미만	18	11.1	88.9	62.5	12.5	0.0	18.8	6.3
	15인-30인 미만	13	15.4	84.6	72.7	18.2	0.0	9.1	0.0
	30인 이상	10	20.0	80.0	62.5	0.0	25.0	12.5	0.0

	구분	사례수	소유	임차					
					보증금有 월세	보증금無 월세	전세	무상 임차	기타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6.9	83.1	68.5	9.3	11.1	8.3	2.8
	2010년-2015년	175	9.7	90.3	74.7	8.9	3.8	7.6	5.1
	2016년-2020년	184	4.3	95.7	69.9	10.2	3.4	12.5	4.0
	2020년 후	135	3.0	97.0	64.1	16.8	2.3	10.7	6.1
사업자	개인	270	6.3	93.7	68.8	12.3	3.2	10.7	5.1
	법인	354	9.6	90.4	70.3	10.3	5.9	9.4	4.1
업종	생산·가공	109	8.3	91.7	65.0	13.0	7.0	8.0	7.0
	집수리	135	12.6	87.4	71.2	11.0	6.8	8.5	2.5
	세탁·청소	121	9.1	90.9	76.4	7.3	5.5	9.1	1.8
	배송·운전	96	4.2	95.8	62.0	12.0	1.1	20.7	4.3
	음식점	68	4.4	95.6	70.8	13.8	1.5	7.7	6.2
	유통·판매	48	0.0	100.0	72.9	10.4	2.1	2.1	12.5
	사회서비스	32	21.9	78.1	64.0	8.0	12.0	16.0	0.0
	재활용·환경	8	0.0	100.0	87.5	12.5	0.0	0.0	0.0
	기타	7	0.0	100.0	71.4	28.6	0.0	0.0	0.0
소재지	서울	87	4.6	95.4	79.5	6.0	6.0	6.0	2.4
	부산	46	2.2	97.8	82.2	8.9	2.2	0.0	6.7
	대구	24	4.2	95.8	100.0	0.0	0.0	0.0	0.0
	인천	35	11.4	88.6	74.2	9.7	6.5	0.0	9.7
	광주	18	5.6	94.4	82.4	5.9	0.0	5.9	5.9
	대전	15	6.7	93.3	71.4	0.0	14.3	14.3	0.0
	울산	14	0.0	100.0	71.4	14.3	7.1	7.1	0.0
	경기	91	6.6	93.4	78.8	3.5	2.4	11.8	3.5
	강원	31	9.7	90.3	67.9	7.1	3.6	17.9	3.6
	충북	20	15.0	85.0	64.7	23.5	5.9	5.9	0.0
	충남(세종)	39	15.4	84.6	63.6	18.2	9.1	6.1	3.0
	전북	55	12.7	87.3	62.5	20.8	6.3	4.2	6.3
	전남	45	15.6	84.4	36.8	18.4	2.6	39.5	2.6

	구분	사례수	소유	임차					
					보증금有 월세	보증금無 월세	전세	무상 임차	기타
	경북	31	12.9	87.1	66.7	11.1	11.1	11.1	0.0
	경남	55	3.6	96.4	60.4	20.8	1.9	15.1	1.9
	제주	18	5.6	94.4	23.5	17.6	5.9	11.8	41.2

(2) 임대료 수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평균 2,976만원, 월세 평균 8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3,327만원)과 월세(94만원)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보증금 5,013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증금과 월세

(단위 : 개, 만원, %)

	구분	사례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만	1-2천만	2-3천만	3-5천만	5천 이상	평균	30만	30-50만	50-100만	100만 이상
전체		399	2,976	23.8	22.1	18.8	15.5	19.8	88	11.8	20.6	38.6	29.1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14	2,455	26.3	22.8	17.5	14.9	18.4	76	12.3	25.4	38.6	23.7
	3인-5인 미만	164	2,881	23.8	22.6	21.3	17.7	14.6	88	12.8	18.3	37.8	31.1
	5인-10인 미만	98	2,931	20.4	23.5	18.4	14.3	23.5	92	7.1	20.4	43.9	28.6
	10인-15인 미만	10	4,070	30.0	10.0	10.0	10.0	40.0	90	30.0	10.0	20.0	40.0
	15인-30인 미만	8	5,538	25.0	0.0	12.5	12.5	50.0	83	12.5	25.0	25.0	37.5
	30인 이상	5	12,546	20.0	20.0	0.0	0.0	60.0	268	20.0	0.0	20.0	60.0
인증시기	2010년 전	74	3,090	20.3	28.4	20.3	10.8	20.3	73	10.8	24.3	41.9	23.0
	2010년-2015년	118	2,959	32.2	18.6	17.8	8.5	22.9	80	15.3	24.6	39.8	20.3
	2016년-2020년	123	2,751	23.6	19.5	17.9	23.6	15.4	82	14.6	20.3	39.0	26.0

	구분	사례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만	1-2천만	2-3천만	3-5천만	5천이상	평균	30만	30-50만	50-100만	100만이상
	2020년 후	84	3,230	15.5	25.0	20.2	17.9	21.4	120	3.6	11.9	33.3	51.2
사업자	개인	174	2,522	24.7	25.9	18.4	17.2	13.8	79	12.6	22.4	36.8	28.2
	법인	225	3,327	23.1	19.1	19.1	14.2	24.4	94	11.1	19.1	40.0	29.8
업종	생산·가공	65	2,954	15.4	29.2	15.4	21.5	18.5	96	13.8	20.0	30.8	35.4
	집수리	84	2,330	32.1	25.0	14.3	10.7	17.9	63	10.7	28.6	45.2	15.5
	세탁·청소	84	2,323	27.4	26.2	20.2	10.7	15.5	55	16.7	21.4	57.1	4.8
	배송·운전	57	1,751	38.6	17.5	21.1	14.0	8.8	91	14.0	28.1	24.6	33.3
	음식점	46	4,174	4.3	17.4	23.9	30.4	23.9	126	2.2	13.0	23.9	60.9
	유통·판매	35	4,683	8.6	14.3	28.6	17.1	31.4	141	2.9	8.6	31.4	57.1
	사회서비스	16	6,833	25.0	18.8	12.5	0.0	43.8	135	12.5	6.3	37.5	43.8
	재활용·환경	7	4,007	14.3	0.0	14.3	28.6	42.9	72	14.3	0.0	71.4	14.3
	기타	5	2,280	60.0	0.0	0.0	0.0	40.0	47	40.0	20.0	20.0	20.0
소재지	서울	66	3,911	10.6	25.8	24.2	16.7	22.7	110	6.1	10.6	43.9	39.4
	부산	37	3,116	16.2	24.3	10.8	27.0	21.6	100	8.1	13.5	32.4	45.9
	대구	23	2,649	17.4	17.4	26.1	8.7	30.4	81	13.0	13.0	39.1	34.8
	인천	23	3,617	34.8	17.4	4.3	13.0	30.4	83	17.4	17.4	47.8	17.4
	광주	14	2,293	21.4	28.6	14.3	7.1	28.6	70	7.1	35.7	42.9	14.3
	대전	10	3,650	10.0	30.0	10.0	20.0	30.0	99	10.0	20.0	40.0	30.0
	울산	10	2,450	10.0	10.0	30.0	40.0	10.0	124	0.0	0.0	50.0	50.0
	경기	67	3,201	17.9	16.4	23.9	19.4	22.4	113	9.0	11.9	35.8	43.3
	강원	19	1,753	31.6	42.1	10.5	0.0	15.8	63	0.0	47.4	36.8	15.8
	충북	11	1,891	18.2	27.3	27.3	18.2	9.1	50	18.2	36.4	36.4	9.1
	충남(세종)	21	2,810	23.8	28.6	19.0	14.3	14.3	78	4.8	23.8	57.1	14.3
	전북	30	3,707	40.0	13.3	20.0	6.7	20.0	51	26.7	30.0	36.7	6.7
	전남	14	1,005	57.1	21.4	7.1	14.3	0.0	56	14.3	28.6	42.9	14.3
	경북	18	1,061	66.7	11.1	11.1	5.6	5.6	54	22.2	44.4	16.7	16.7
	경남	32	2,648	21.9	25.0	25.0	15.6	12.5	65	25.0	28.1	31.3	15.6
	제주	4	5,013	25.0	25.0	0.0	25.0	25.0	180	0.0	0.0	25.0	75.0

2. 자활기업 운영 현황

자활기업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생애주기, 판로 현황,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자금조달 방식, 운영시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운영 생애주기

자활기업의 운영 성과 측면에서 어느 생애주기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5.1%가 성장단계, 25.8%가 생존단계, 16.2%가 성숙단계, 14.1%가 위기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기 인증기업(2010년 이전)들은 33.1%가 성숙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환경 업종의 기업이 위기단계(25.0%)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단계는 조직 운영 시작,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에 많은 에너지 투입이 들어가는 시기, 생존단계는 사업계획 및 전략수정,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변화)요구되는 시기, 성장단계는 운영시스템 정착, 성장에 따른 효율성 증가, 시장· 상품· 서비스 확장 도전하는 시기, 성숙단계는 이익 창출 모델사업 정립, 지속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자 요구시기, 위기단계는 운영 지속 어려움으로 업종전환 등 압박감 증가, 휴업 나아가 폐업 고려시기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8〉 운영 성과적 생애주기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시작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위기단계
전체		624	8.8	25.8	35.1	16.2	14.1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10.4	34.1	28.7	14.6	12.2
	3인-5인 미만	256	8.2	24.6	39.5	14.8	12.9
	5인-10인 미만	163	8.6	21.5	35.6	17.2	17.2
	10인-15인 미만	18	5.6	22.2	33.3	22.2	16.7
	15인-30인 미만	13	7.7	15.4	30.8	30.8	15.4
	30인 이상	10	10.0	10.0	30.0	30.0	2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3.1	13.1	35.4	33.1	15.4
	2010년-2015년	175	0.6	24.0	39.4	21.1	14.9
	2016년-2020년	184	6.5	29.3	37.0	8.2	19.0
	2020년 후	135	28.1	35.6	26.7	4.4	5.2
사업자	개인	270	8.1	31.1	32.6	10.7	17.4
	법인	354	9.3	21.8	37.0	20.3	11.6
업종	생산·가공	109	6.4	26.6	31.2	16.5	19.3
	집수리	135	8.9	24.4	34.1	24.4	8.1
	세탁·청소	121	12.4	28.9	31.4	11.6	15.7
	배송·운전	96	5.2	26.0	43.8	13.5	11.5
	음식점	68	11.8	23.5	41.2	13.2	10.3
	유통·판매	48	10.4	31.3	29.2	8.3	20.8
	사회서비스	32	6.3	9.4	40.6	25.0	18.8
	재활용·환경	8	12.5	25.0	25.0	12.5	25.0
	기타	7	0.0	42.9	28.6	14.3	14.3

	구분	사례수	시작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위기단계
소재지	서울	87	14.9	21.8	31.0	14.9	17.2
	부산	46	4.3	28.3	37.0	8.7	21.7
	대구	24	12.5	29.2	33.3	16.7	8.3
	인천	35	8.6	28.6	34.3	22.9	5.7
	광주	18	5.6	22.2	61.1	5.6	5.6
	대전	15	6.7	26.7	33.3	26.7	6.7
	울산	14	14.3	7.1	28.6	14.3	35.7
	경기	91	8.8	27.5	31.9	15.4	16.5
	강원	31	3.2	12.9	48.4	25.8	9.7
	충북	20	0.0	20.0	45.0	15.0	20.0
	충남(세종)	39	5.1	28.2	28.2	28.2	10.3
	전북	55	9.1	27.3	34.5	18.2	10.9
	전남	45	6.7	26.7	37.8	17.8	11.1
	경북	31	9.7	19.4	45.2	12.9	12.9
	경남	55	5.5	36.4	30.9	10.9	16.4
	제주	18	27.8	33.3	22.2	5.6	11.1

2)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종류 및 비율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지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44.9%가 정부와 계약을 맺는 B2G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43.9%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B2C), 10.5%가 기업과 계약(B2B)하는 방식이었다. B2C방식에서는 자체매장에서 판매하는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판매(79.2%), 음식점(64.3%) 등의 업종에서 자체매장 판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서비스(27.1%), 세탁·청소(19.0%)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기 인증기업(57.9%)의 경우 B2G 방식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계약 경로를 선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종류 및 비율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터	비대면 창구			
전체		624	28.0	3.8	1.1	2.8	8.2	10.5	44.9	0.7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8	4.8	0.9	3.1	9.5	9.4	45.0	0.6
	3인-5인 미만	256	32.1	4.4	1.3	3.5	7.0	8.8	42.4	0.6
	5인-10인 미만	163	23.9	2.1	1.2	1.9	7.4	13.8	48.5	1.2
	10인-15인 미만	18	13.6	1.7	0.3	0.0	13.4	10.9	60.1	0.0
	15인-30인 미만	13	28.8	7.8	0.0	0.0	5.8	18.5	39.2	0.0
	30인 이상	10	35.5	0.5	0.0	2.0	24.0	9.0	29.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5.9	2.9	0.2	1.1	9.8	12.3	57.9	0.1
	2010년-2015년	175	19.4	3.2	1.3	1.8	8.0	9.7	56.0	0.6
	2016년-2020년	184	33.6	4.2	1.4	2.9	8.4	9.8	38.0	1.7
	2020년 후	135	43.4	5.0	1.3	5.5	6.7	10.8	27.3	0.2
사업자	개인	270	37.6	4.6	1.4	3.9	8.4	8.8	34.6	0.8
	법인	354	20.8	3.3	0.9	1.9	8.0	11.8	52.8	0.7
업종	생산·가공	109	32.8	8.0	1.6	6.2	9.8	15.0	24.6	2.0
	집수리	135	5.3	0.4	0.2	0.3	1.4	10.2	81.5	0.8
	세탁·청소	121	19.0	2.7	1.5	1.7	12.9	19.0	43.2	0.0
	배송·운전	96	11.4	0.9	0.9	1.1	5.3	6.3	73.8	0.2
	음식점	68	64.3	7.2	1.3	4.8	9.6	2.9	9.8	0.0
	유통·판매	48	79.2	2.5	2.3	4.1	3.7	1.6	6.5	0.0
	사회서비스	32	26.6	10.9	0.2	3.1	27.1	5.6	23.4	3.1
	재활용·환경	8	65.6	6.3	1.3	4.4	4.4	5.6	12.5	0.0
	기타	7	38.4	4.6	0.6	4.3	5.9	19.1	27.1	0.0
소재지	서울	87	36.4	4.5	1.8	3.0	10.5	9.8	32.9	1.2
	부산	46	32.9	5.5	1.5	1.5	3.9	7.0	47.6	0.0
	대구	24	37.5	4.8	0.8	1.8	8.7	17.1	29.4	0.0
	인천	35	13.7	1.4	1.2	1.3	10.3	9.8	62.0	0.3
	광주	18	22.2	1.1	0.6	4.4	1.7	14.7	55.3	0.0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터	비대면 창구			
	대전	15	23.0	3.0	0.7	1.3	8.0	9.3	54.7	0.0
	울산	14	30.4	0.7	1.4	0.0	17.5	9.6	40.4	0.0
	경기	91	30.6	5.6	0.8	1.8	9.0	11.5	38.7	2.0
	강원	31	26.6	3.5	0.8	2.7	12.2	4.7	46.3	3.2
	충북	20	22.8	8.5	1.3	1.8	6.0	12.3	47.3	0.3
	충남(세종)	39	23.3	2.4	0.3	3.3	5.1	10.2	54.7	0.6
	전북	55	24.5	3.2	2.0	4.1	11.5	11.9	42.9	0.0
	전남	45	23.2	1.0	0.6	1.2	5.4	10.3	57.9	0.3
	경북	31	21.4	3.6	1.1	2.0	9.4	4.4	58.2	0.0
	경남	55	22.9	4.1	0.6	7.6	5.0	14.7	45.0	0.1
	제주	18	54.4	3.1	1.4	1.9	5.0	10.3	23.9	0.0

3) 홍보 및 마케팅 활용

(1) 홍보 및 마케팅 활용방법

자활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은 블로그/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홈페이지(22.8%), 카카오톡/밴드/라인(12.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자체홈페이지(60.0%)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중규모 이상의 기업(10-15인)에서는 신문/지면(23.1%)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환경(87.5%), 사회서비스(71.9%) 업종은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9.2%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업종 중 배송·운전(71.9%), 집수리(56.3%), 유통·판매(54.2%)가 홍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홍보필요성이 없음(58.0%), 홍보 가능 인력없음(20.2%), 홍보 방법을 모름(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홍보 및 마케팅 방법(중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오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페이스북	신문	기타	안함
전체		624	22.8	12.3	24.5	0.2	2.9	11.1	9.8	1.1	49.2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2.0	11.0	28.0	0.0	3.0	14.0	9.8	0.6	45.7
	3인-5인 미만	256	19.1	12.9	21.5	0.0	2.3	9.8	9.0	0.8	53.5
	5인-10인 미만	163	23.9	12.9	22.7	0.6	3.7	9.8	9.2	1.2	50.9
	10인-15인 미만	18	44.4	5.6	33.3	0.0	0.0	11.1	22.2	5.6	27.8
	15인-30인 미만	13	30.8	15.4	30.8	0.0	7.7	15.4	23.1	7.7	38.5
	30인 이상	10	60.0	20.0	50.0	0.0	0.0	10.0	0.0	0.0	2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9.2	11.5	28.5	0.0	1.5	6.9	9.2	0.0	52.3
	2010년-2015년	175	26.9	8.6	21.7	0.0	3.4	8.0	11.4	0.6	49.7
	2016년-2020년	184	22.3	11.4	20.7	0.5	2.7	10.9	9.2	0.5	52.2
	2020년 후	135	11.9	19.3	29.6	0.0	3.7	19.3	8.9	3.7	41.5
사업자	개인	270	14.1	13.3	20.0	0.0	2.2	10.4	7.8	1.1	55.2
	법인	354	29.4	11.6	28.0	0.3	3.4	11.6	11.3	1.1	44.6
업종	생산·가공	109	22.9	14.7	22.9	0.9	2.8	18.3	8.3	0.0	46.8
	집수리	135	16.3	6.7	17.0	0.0	1.5	5.9	13.3	0.0	56.3
	세탁·청소	121	30.6	14.0	33.9	0.0	4.1	9.1	17.4	2.5	38.8
	배송·운전	96	18.8	9.4	4.2	0.0	1.0	3.1	4.2	0.0	71.9
	음식점	68	11.8	11.8	35.3	0.0	4.4	27.9	2.9	2.9	38.2
	유통·판매	48	16.7	14.6	20.8	0.0	0.0	4.2	6.3	2.1	54.2
	사회서비스	32	53.1	18.8	56.3	0.0	0.0	9.4	9.4	0.0	28.1
	재활용·환경	8	50.0	25.0	50.0	0.0	25.0	12.5	12.5	12.5	12.5
	기타	7	42.9	42.9	57.1	0.0	28.6	28.6	0.0	0.0	28.6
소재지	서울	87	21.8	17.2	26.4	0.0	4.6	6.9	13.8	3.4	42.5
	부산	46	15.2	6.5	28.3	0.0	4.3	19.6	10.9	0.0	52.2
	대구	24	25.0	12.5	45.8	0.0	0.0	4.2	4.2	0.0	45.8
	인천	35	37.1	5.7	25.7	0.0	2.9	5.7	2.9	0.0	48.6
	광주	18	33.3	11.1	5.6	0.0	0.0	5.6	5.6	0.0	44.4
	대전	15	13.3	6.7	6.7	0.0	0.0	20.0	6.7	6.7	60.0
	울산	14	7.1	7.1	28.6	0.0	0.0	21.4	7.1	7.1	50.0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오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페이스 북	신문	기타	안함
	경기	91	36.3	12.1	29.7	0.0	2.2	9.9	8.8	1.1	46.2
	강원	31	32.3	3.2	22.6	3.2	6.5	16.1	9.7	0.0	41.9
	충북	20	35.0	35.0	40.0	0.0	0.0	20.0	10.0	0.0	35.0
	충남(세종)	39	20.5	10.3	30.8	0.0	5.1	12.8	5.1	0.0	51.3
	전북	55	12.7	18.2	18.2	0.0	1.8	3.6	12.7	0.0	54.5
	전남	45	6.7	6.7	11.1	0.0	0.0	4.4	13.3	0.0	71.1
	경북	31	19.4	16.1	29.0	0.0	3.2	16.1	3.2	0.0	45.2
	경남	55	20.0	9.1	16.4	0.0	5.5	12.7	12.7	0.0	50.9
	제주	18	16.7	22.2	22.2	0.0	0.0	27.8	16.7	5.6	44.4

4) 자활기업의 자금조달

(1) 자금조달 방법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자금(중소기업공단, 신용보증재단, 신보기금 등)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금융기관 대출(18.1%), 조합원 출자금(7.5%)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6.7%) 업종은 대표자 지인 등 개인차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53.7%가 자금을 대출받거나 조달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규모 이상(15-20인)의 기업에서 6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자활기업 자금조달 방법(중복응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 공제 기금	출자 금	후원 금	타자 활	개인 차입	기타
전체		624	53.7	18.1	28.0	1.9	3.0	7.5	1.8	1.8	2.9	0.3
기업	1인-3인 미만	164	55.5	14.6	31.1	1.8	1.2	4.3	0.6	1.2	2.4	0.0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 공제 기금	출자 금	후원 금	타자 활	개인 차입	기타
규모	3인-5인 미만	256	57.0	17.6	21.5	0.8	2.0	7.8	2.7	2.3	4.3	0.4
	5인-10인 미만	163	50.3	19.6	33.1	3.1	3.7	9.8	0.6	1.2	1.8	0.6
	10인-15인 미만	18	38.9	33.3	27.8	5.6	16.7	5.6	0.0	0.0	0.0	0.0
	15인-30인 미만	13	61.5	15.4	30.8	0.0	0.0	0.0	0.0	0.0	0.0	0.0
	30인 이상	10	10.0	40.0	60.0	10.0	30.0	30.0	20.0	10.0	0.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5.4	34.6	36.2	3.1	3.1	6.9	2.3	0.0	3.1	0.0
	2010년-2015년	175	53.7	21.7	31.4	2.3	5.7	5.7	1.7	2.3	2.9	0.0
	2016년-2020년	184	57.6	14.1	26.6	1.6	2.2	8.7	1.6	0.5	1.6	1.1
	2020년 후	135	65.9	3.0	17.8	0.7	0.7	8.9	1.5	4.4	4.4	0.0
사업자	개인	270	58.5	15.6	23.0	1.1	0.4	4.4	1.1	2.2	3.7	0.4
	법인	354	50.0	20.1	31.9	2.5	5.1	9.9	2.3	1.4	2.3	0.3
업종	생산·가공	109	55.0	20.2	31.2	0.9	4.6	4.6	1.8	0.0	3.7	0.9
	집수리	135	36.3	35.6	36.3	2.2	3.7	5.2	0.7	1.5	6.7	0.0
	세탁·청소	121	59.5	15.7	22.3	2.5	0.8	5.0	0.0	1.7	1.7	0.0
	배송·운전	96	65.6	9.4	21.9	1.0	3.1	7.3	1.0	3.1	0.0	1.0
	음식점	68	57.4	4.4	23.5	2.9	0.0	13.2	4.4	2.9	4.4	0.0
	유통·판매	48	56.3	10.4	27.1	0.0	4.2	12.5	2.1	2.1	0.0	0.0
	사회서비스	32	50.0	15.6	34.4	3.1	9.4	18.8	9.4	3.1	0.0	0.0
	재활용·환경	8	62.5	25.0	25.0	12.5	0.0	0.0	0.0	0.0	0.0	0.0
	기타	7	57.1	0.0	28.6	0.0	0.0	14.3	0.0	0.0	0.0	0.0
소재지	서울	87	47.1	14.9	26.4	6.9	5.7	14.9	5.7	1.1	1.1	1.1
	부산	46	47.8	17.4	32.6	2.2	2.2	8.7	4.3	4.3	4.3	0.0
	대구	24	70.8	4.2	16.7	0.0	0.0	4.2	0.0	0.0	4.2	0.0
	인천	35	60.0	20.0	25.7	2.9	2.9	0.0	0.0	2.9	2.9	0.0
	광주	18	72.2	0.0	22.2	0.0	0.0	0.0	0.0	0.0	5.6	0.0
	대전	15	40.0	6.7	33.3	6.7	6.7	13.3	0.0	0.0	13.3	0.0
	울산	14	42.9	28.6	42.9	0.0	0.0	0.0	0.0	0.0	0.0	0.0
	경기	91	54.9	17.6	25.3	1.1	1.1	5.5	0.0	5.5	2.2	0.0
	강원	31	51.6	22.6	38.7	0.0	6.5	3.2	0.0	0.0	0.0	0.0
	충북	20	60.0	20.0	25.0	0.0	5.0	5.0	5.0	0.0	0.0	0.0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 공제 기금	출자 금	후원 금	타자 활	개인 차입	기타
	충남(세종)	39	33.3	33.3	46.2	2.6	5.1	17.9	2.6	0.0	5.1	0.0
	전북	55	54.5	25.5	23.6	1.8	5.5	5.5	1.8	1.8	3.6	0.0
	전남	45	64.4	13.3	22.2	0.0	0.0	4.4	0.0	0.0	4.4	0.0
	경북	31	48.4	25.8	22.6	0.0	0.0	12.9	3.2	0.0	0.0	3.2
	경남	55	61.8	16.4	25.5	0.0	1.8	5.5	0.0	1.8	1.8	0.0
	제주	18	55.6	11.1	38.9	0.0	5.6	5.6	0.0	0.0	5.6	0.0

(2) 자금조달 용도

지난 3년간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운영자금/인건비(83.4%), 시설 및 공간자금(34.3%), 차입금 대환(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2020년 이후)에 인증받은 신생 자활기업이 시설 및 공간자금(46.3%)으로 자금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는 설비와 임차료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판매 업종에서는 운영자금(100%)으로, 생산·가공업종에서는 시설 및 공간자금(46.7%)으로 활용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 자금용도(복수응답)

(단위 : 개, 만원, %)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환	기타
전체		277	83.4	34.3	6.5	3.2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70	85.7	32.9	7.1	2.9
	3인-5인 미만	103	85.4	30.1	5.8	4.9
	5인-10인 미만	79	86.1	35.4	6.3	0.0
	10인-15인 미만	11	72.7	45.5	9.1	9.1
	15인-30인 미만	5	80.0	60.0	0.0	0.0
	30인 이상	9	33.3	55.6	11.1	11.1
인증 시기	2010년 전	80	82.5	28.8	8.8	2.5
	2010년-2015년	79	84.8	32.9	7.6	3.8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환	기타
	2016년-2020년	77	84.4	35.1	5.2	3.9
	2020년 후	41	80.5	46.3	2.4	2.4
사업자	개인	105	88.6	25.7	6.7	3.8
	법인	172	80.2	39.5	6.4	2.9
업종	생산·가공	45	75.6	46.7	6.7	0.0
	집수리	81	95.1	23.5	9.9	3.7
	세탁·청소	48	79.2	27.1	6.3	6.3
	배송·운전	33	78.8	45.5	0.0	3.0
	음식점	27	85.2	37.0	0.0	0.0
	유통·판매	21	100.0	23.8	9.5	0.0
	사회서비스	16	50.0	50.0	6.3	12.5
	재활용·환경	3	66.7	66.7	33.3	0.0
	기타	3	66.7	66.7	0.0	0.0
소재지	서울	44	86.4	36.4	13.6	0.0
	부산	24	87.5	33.3	12.5	8.3
	대구	6	83.3	33.3	0.0	0.0
	인천	13	84.6	38.5	0.0	0.0
	광주	4	50.0	75.0	0.0	0.0
	대전	7	71.4	28.6	0.0	14.3
	울산	8	100.0	25.0	12.5	0.0
	경기	39	76.9	38.5	2.6	2.6
	강원	15	80.0	33.3	0.0	6.7
	충북	8	75.0	50.0	0.0	12.5
	충남(세종)	26	84.6	30.8	7.7	3.8
	전북	24	75.0	37.5	16.7	0.0
	전남	15	100.0	0.0	0.0	6.7
	경북	16	81.3	37.5	0.0	0.0
	경남	21	95.2	23.8	0.0	4.8
	제주	7	71.4	71.4	14.3	0.0

(3) 자금조달 규모

지난 3년간 조달한 자금 규모는 평균 약 1억 4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운영자금이 140.3백만원, 시설 및 공간 자금 78.7백만원, 차입금 2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사회서비스의 경우 시설 및 공간자금으로 활용한 금액이 160.4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과 강원에서 시설 및 공간 자금으로 각각 200.0백만원, 181.6백만원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자금규모(복수응답)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전체		245	146.6	140.3	78.7	26.9	48.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64	148.1	147.4	59.5	30.0	32.0
	3인-5인 미만	92	135.0	133.0	55.6	31.8	69.0
	5인-10인 미만	69	163.1	150.4	90.6	23.2	-
	10인-15인 미만	10	127.3	125.4	77.2	10.0	1.0
	15인-30인 미만	3	212.0	115.0	200.0	-	-
	30인 이상	7	113.3	53.3	168.4	17.0	1.0
인증 시기	2010년 전	70	117.2	100.0	110.4	30.0	12.5
	2010년-2015년	69	171.1	161.9	96.2	23.0	9.7
	2016년-2020년	67	158.6	162.8	54.8	33.8	25.3
	2020년 후	39	134.7	132.5	49.1	1.0	175.0
사업 자	개인	98	115.0	116.1	38.0	24.3	32.3
	법인	147	165.8	156.6	94.3	28.6	58.5
업종	생산·가공	40	174.7	165.9	102.7	21.7	30.0
	집수리	68	157.5	134.6	107.6	31.9	5.0
	세탁·청소	45	139.3	155.9	52.6	22.0	50.0
	배송·운전	32	104.1	109.6	35.7	-	-
	음식점	23	115.5	121.7	35.7	-	-
	유통·판매	19	196.4	172.8	65.4	33.0	300.0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사회서비스	12	142.2	118.8	160.4	17.0	12.5
	재활용·환경	3	75.3	90.0	15.5	15.0	-
	기타	3	28.3	35.0	7.5	-	-
소재지	서울	41	120.3	109.6	48.4	28.8	300.0
	부산	21	143.0	141.4	43.6	17.0	32.0
	대구	6	93.3	84.0	69.9	-	-
	인천	9	179.2	120.9	200.0	-	-
	광주	4	197.8	347.0	32.3	-	-
	대전	6	164.9	206.6	60.0	-	1.0
	울산	7	180.3	175.9	7.5	20.0	-
	경기	31	187.1	204.5	73.8	45.0	10.0
	강원	14	125.6	77.2	181.6	-	50.0
	충북	7	138.8	119.7	92.0	-	24.0
	충남(세종)	24	146.7	155.3	37.7	60.0	15.0
	전북	23	103.5	84.9	99.0	16.3	-
	전남	14	65.4	64.4	-	-	15.0
	경북	14	109.1	108.2	56.7	-	-
	경남	19	200.1	189.8	80.8	-	1.0
	제주	5	302.9	298.0	124.0	10.0	-

(4) 자금조달 시 문제점

자금을 조달하며 느낀 가장 어려운 점은 제출서류 구비(16.3%), 높은이자(14.7%),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 입증(12.7%), 담보 및 보증 부담(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는 제출서류 구비(19.6%)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6.1%)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자금 조달 어려운점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제출서류	높은이자	소요시간	담보부담	가치입증	상환기간	기타	없음
전체		624	16.3	14.7	1.0	11.5	12.7	4.0	1.9	37.8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19.5	12.2	0.6	7.9	10.4	3.7	0.6	45.1
	3인-5인 미만	256	15.6	15.6	0.4	13.3	12.9	4.3	2.0	35.9
	5인-10인 미만	163	15.3	12.9	2.5	12.3	15.3	3.1	2.5	36.2
	10인-15인 미만	18	16.7	27.8	0.0	11.1	11.1	0.0	11.1	22.2
	15인-30인 미만	13	7.7	15.4	0.0	15.4	7.7	0.0	0.0	53.8
	30인 이상	10	10.0	40.0	0.0	10.0	10.0	30.0	0.0	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15.4	23.1	0.8	13.1	10.8	6.2	0.0	30.8
	2010년-2015년	175	12.0	21.1	0.6	10.3	13.7	4.0	2.3	36.0
	2016년-2020년	184	17.4	10.9	1.1	14.1	9.8	2.7	3.8	40.2
	2020년 후	135	21.5	3.7	1.5	8.1	17.0	3.7	0.7	43.7
사업자	개인	270	19.6	14.1	0.7	10.0	8.1	4.4	1.5	41.5
	법인	354	13.8	15.3	1.1	12.7	16.1	3.7	2.3	35.0
업종	생산·가공	109	11.0	14.7	0.0	16.5	10.1	3.7	2.8	41.3
	집수리	135	14.1	25.9	0.7	11.1	17.0	5.2	1.5	24.4
	세탁·청소	121	22.3	11.6	0.8	10.7	12.4	3.3	0.8	38.0
	배송·운전	96	14.6	9.4	2.1	12.5	12.5	1.0	0.0	47.9
	음식점	68	19.1	7.4	1.5	7.4	8.8	5.9	4.4	45.6
	유통·판매	48	20.8	14.6	0.0	10.4	8.3	2.1	4.2	39.6

	구분	사례수	제출 서류	높은이자	소요시간	담보부담	가치입증	상환기간	기타	없음
	사회서비스	32	12.5	18.8	3.1	6.3	15.6	6.3	0.0	37.5
	재활용·환경	8	0.0	0.0	0.0	12.5	37.5	12.5	12.5	25.0
	기타	7	42.9	0.0	0.0	14.3	0.0	14.3	0.0	28.6
소재지	서울	87	14.9	11.5	1.1	8.0	13.8	6.9	2.3	41.4
	부산	46	30.4	8.7	2.2	10.9	6.5	2.2	4.3	34.8
	대구	24	25.0	12.5	0.0	8.3	16.7	0.0	0.0	37.5
	인천	35	2.9	25.7	2.9	14.3	17.1	2.9	2.9	31.4
	광주	18	11.1	0.0	0.0	5.6	11.1	5.6	5.6	61.1
	대전	15	26.7	13.3	0.0	6.7	20.0	0.0	0.0	33.3
	울산	14	7.1	21.4	0.0	7.1	14.3	14.3	0.0	35.7
	경기	91	22.0	16.5	1.1	9.9	12.1	3.3	2.2	33.0
	강원	31	12.9	12.9	0.0	19.4	6.5	6.5	3.2	38.7
	충북	20	10.0	25.0	0.0	25.0	0.0	0.0	0.0	40.0
	충남(세종)	39	12.8	23.1	0.0	12.8	17.9	7.7	2.6	23.1
	전북	55	20.0	12.7	0.0	10.9	16.4	3.6	0.0	36.4
	전남	45	11.1	17.8	2.2	11.1	6.7	4.4	0.0	46.7
	경북	31	12.9	22.6	0.0	16.1	6.5	0.0	0.0	41.9
	경남	55	12.7	9.1	1.8	7.3	21.8	3.6	1.8	41.8
	제주	18	16.7	5.6	0.0	27.8	5.6	0.0	5.6	38.9

3.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및 협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조직과 얼마나 협력하는지,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1) 네트워크 경험

자활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0.5%가 협력경험이 있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58.5%), 다른 자활기업과 협력(49.5%),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43.3%), 사회복지시설과 협력(43.1%)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이 협력경험(71.1%)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개인사업자가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4.8%). 반편 법인사업자는 협력경험이 낮지만, 협력을 한다면 민간기업(29.1%)과 협력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수리(83.7%)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매우 높으며, 사회서비스업(75.0%)은 다른 자활기업과의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전체		624	50.5	49.5	43.3	58.5	43.1	24.2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54.9	45.1	39.6	57.9	39.0	22.0
	3인-5인 미만	256	55.1	44.9	37.5	57.0	39.5	20.7
	5인-10인 미만	163	47.9	52.1	47.9	58.9	47.2	28.2
	10인-15인 미만	18	16.7	83.3	77.8	72.2	72.2	50.0
	15인-30인 미만	13	15.4	84.6	69.2	76.9	69.2	38.5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30인 이상	10	10.0	90.0	80.0	50.0	50.0	2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38.5	61.5	57.7	66.2	62.3	33.8
	2010년-2015년	175	35.4	64.6	52.6	65.7	42.3	28.0
	2016년-2020년	184	58.2	41.8	37.0	54.3	37.5	19.6
	2020년 후	135	71.1	28.9	25.9	47.4	33.3	16.3
사업자	개인	270	64.8	35.2	28.1	47.0	33.0	17.8
	법인	354	39.5	60.5	54.8	67.2	50.8	29.1
업종	생산·가공	109	54.1	45.9	40.4	45.0	37.6	29.4
	집수리	135	38.5	61.5	57.0	83.7	60.7	30.4
	세탁·청소	121	38.0	62.0	49.6	58.7	57.9	31.4
	배송·운전	96	57.3	42.7	32.3	67.7	21.9	15.6
	음식점	68	73.5	26.5	26.5	39.7	30.9	10.3
	유통·판매	48	77.1	22.9	27.1	29.2	18.8	16.7
	사회서비스	32	25.0	75.0	62.5	53.1	56.3	21.9
	재활용·환경	8	50.0	50.0	37.5	62.5	25.0	12.5
	기타	7	57.1	42.9	57.1	57.1	71.4	28.6
소재지	서울	87	48.3	51.7	43.7	57.5	41.4	23.0
	부산	46	56.5	43.5	37.0	52.2	43.5	17.4
	대구	24	79.2	20.8	29.2	37.5	33.3	4.2
	인천	35	34.3	65.7	54.3	68.6	51.4	20.0
	광주	18	66.7	33.3	33.3	55.6	27.8	11.1
	대전	15	26.7	73.3	60.0	80.0	60.0	13.3
	울산	14	35.7	64.3	35.7	42.9	35.7	28.6
	경기	91	37.4	62.6	50.5	63.7	50.5	31.9
	강원	31	48.4	51.6	38.7	67.7	51.6	25.8
	충북	20	45.0	55.0	50.0	55.0	50.0	45.0
	충남(세종)	39	43.6	56.4	53.8	64.1	41.0	30.8
	전북	55	50.9	49.1	49.1	54.5	43.6	25.5
	전남	45	66.7	33.3	22.2	57.8	28.9	22.2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경북	31	51.6	48.4	41.9	61.3	41.9	29.0
	경남	55	67.3	32.7	40.0	60.0	38.2	21.8
	제주	18	50.0	50.0	44.4	38.9	50.0	22.2

(2) 네트워크 연계정도

협력한 기관과의 연계정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기준으로 지자체·공공기관 2.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자활기업(2.5점), 타 사회적경제조직(2.5점), 사회복지시설(2.4점), 민간기업(2.1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협력의 경험은 낮지만 협력한 경우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수준을 2.6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집수리(3.0점), 배송·운전(3.0점)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경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타조직과 협력사업 연계 정도(4점만점)

(단위 : 개, 점)

	구분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전체		309	2.5	270	2.5	365	2.8	269	2.4	151	2.1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74	2.3	65	2.5	95	2.8	64	2.4	36	2.1
	3인-5인 미만	115	2.5	96	2.5	146	2.7	101	2.3	53	2.1
	5인-10인 미만	85	2.5	78	2.5	96	2.9	77	2.4	46	2.0
	10인-15인 미만	15	2.7	14	2.7	13	2.8	13	2.5	9	1.9
	15인-30인 미만	11	2.8	9	2.4	10	2.9	9	2.4	5	2.8
	30인 이상	9	3.1	8	3.0	5	2.8	5	3.2	2	2.0
인증시기	2010년 전	80	2.6	75	2.6	86	2.9	81	2.4	44	2.0
	2010년-2015년	113	2.5	92	2.6	115	2.8	74	2.3	49	2.1
	2016년-2020년	77	2.3	68	2.4	100	2.7	69	2.5	36	2.2

	구분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2020년 후	39	2.7	35	2.5	64	2.8	45	2.3	22	2.1
사업자	개인	95	2.2	76	2.3	127	2.7	89	2.3	48	2.0
	법인	214	2.6	194	2.6	238	2.8	180	2.4	103	2.1
업종	생산·가공	50	2.6	44	2.9	49	2.8	41	2.5	32	2.5
	집수리	83	2.6	77	2.6	113	3.0	82	2.4	41	1.8
	세탁·청소	75	2.4	60	2.5	71	2.7	70	2.2	38	2.0
	배송·운전	41	2.6	31	2.5	65	3.0	21	2.5	15	2.3
	음식점	18	2.2	18	2.3	27	2.4	21	2.4	7	2.0
	유통·판매	11	2.1	13	1.8	14	2.0	9	2.0	8	1.6
	사회서비스	24	2.7	20	2.6	17	2.5	18	2.4	7	2.7
	재활용·환경	4	3.0	3	2.7	5	2.4	2	1.5	1	1.0
	기타	3	1.7	4	2.0	4	2.8	5	2.4	2	2.0
소재지	서울	45	2.4	38	2.6	50	2.6	36	2.2	20	1.8
	부산	20	2.6	17	2.6	24	2.8	20	2.5	8	1.8
	대구	5	2.2	7	2.3	9	2.8	8	2.4	1	3.0
	인천	23	2.5	19	2.6	24	2.8	18	2.3	7	1.4
	광주	6	3.0	6	3.0	10	3.0	5	3.0	2	2.5
	대전	11	2.4	9	2.8	12	2.8	9	2.1	2	2.0
	울산	9	2.8	5	2.6	6	3.2	5	3.2	4	2.3
	경기	57	2.5	46	2.4	58	2.7	46	2.2	29	1.9
	강원	16	2.6	12	2.5	21	2.7	16	2.4	8	2.6
	충북	11	2.6	10	2.6	11	2.6	10	2.5	9	2.3
	충남(세종)	22	2.8	21	2.8	25	2.8	16	2.5	12	2.4
	전북	27	2.7	27	2.5	30	2.8	24	2.4	14	2.1
	전남	15	2.4	10	2.4	26	2.9	13	2.4	10	2.3
	경북	15	2.3	13	2.4	19	3.1	13	2.5	9	1.9
	경남	18	2.2	22	2.2	33	2.8	21	2.4	12	2.5
	제주	9	2.3	8	2.8	7	2.7	9	2.4	4	2.3

2) 협의체 활동

자활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별로 협의체,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55.3%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80%가 연합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인증기업(2010년 이전) 역시 70.0%가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어 조직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연합회에 가입한 이유는 타 조직과 협력하고(53.9%), 자원을 확보하고(22.3%),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16.5%)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재활용·환경(80.0%), 집수리(60.4%)와 같은 업종은 타 조직과의 협력을 위해 높은 협의체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표 17〉 협의체 가입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가입	가입 이유				미가입
				새로운 아이디어	타조직협력	자원확보	공동기금조성	
전체		624	55.3	16.5	53.9	22.3	7.2	44.7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54.9	24.4	45.6	22.2	7.8	45.1
	3인-5인 미만	256	48.4	14.5	55.6	22.6	7.3	51.6
	5인-10인 미만	163	62.0	14.9	53.5	25.7	5.9	38.0
	10인-15인 미만	18	77.8	0.0	78.6	14.3	7.1	22.2
	15인-30인 미만	13	61.5	12.5	75.0	-	12.5	38.5
	30인 이상	10	80.0	12.5	62.5	12.5	12.5	2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70.0	12.1	61.5	17.6	8.8	30.0
	2010년-2015년	175	63.4	16.2	47.7	26.1	9.9	36.6
	2016년-2020년	184	48.9	17.8	52.2	24.4	5.6	51.1
	2020년 후	135	39.3	22.6	56.6	18.9	1.9	60.7
사업자	개인	270	40.4	22.0	45.0	29.4	3.7	59.6
	법인	354	66.7	14.0	58.1	19.1	8.9	33.3
업종	생산·가공	109	40.4	13.6	50.0	34.1	2.3	59.6
	집수리	135	71.1	16.7	60.4	16.7	6.3	28.9
	세탁·청소	121	54.5	13.6	56.1	21.2	9.1	45.5

	구분	사례수	가입	가입 이유				미가입
				새로운 아이디어	타조직협력	자원확보	공동기금조성	
	배송·운전	96	70.8	22.1	41.2	23.5	13.2	29.2
	음식점	68	36.8	20.0	60.0	20.0	-	63.2
	유통·판매	48	33.3	6.3	50.0	37.5	6.3	66.7
	사회서비스	32	65.6	14.3	61.9	19.0	4.8	34.4
	재활용·환경	8	62.5	20.0	80.0	-	-	37.5
	기타	7	57.1	25.0	25.0	25.0	25.0	42.9
소재지	서울	87	58.6	9.8	58.8	25.5	5.9	41.4
	부산	46	47.8	18.2	45.5	27.3	9.1	52.2
	대구	24	41.7	10.0	40.0	50.0	-	58.3
	인천	35	71.4	24.0	56.0	16.0	4.0	28.6
	광주	18	55.6	20.0	60.0	10.0	10.0	44.4
	대전	15	66.7	20.0	60.0	10.0	10.0	33.3
	울산	14	57.1	12.5	37.5	37.5	12.5	42.9
	경기	91	59.3	16.7	51.9	22.2	9.3	40.7
	강원	31	71.0	18.2	63.6	13.6	4.5	29.0
	충북	20	50.0	10.0	40.0	20.0	30.0	50.0
	충남(세종)	39	71.8	28.6	53.6	14.3	3.6	28.2
	전북	55	49.1	7.4	51.9	25.9	14.8	50.9
	전남	45	28.9	23.1	46.2	30.8	-	71.1
	경북	31	64.5	30.0	45.0	20.0	5.0	35.5
	경남	55	47.3	11.5	65.4	19.2	3.8	52.7
	제주	18	50.0	-	66.7	33.3	-	50.0

4. 자활기업 조직성과

자활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우선되어야하 할 가치, 경제적 성과 변화, 사회적 성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 ②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③취약계층 안정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 ⑤선한 영향력 실현 및 확산, ⑥공공·민간·시민사회와 협력, ⑦혁신 활동 강화, ⑧공유가치 창출 추진 활동 강화, ⑨전문직업적 역량 강화, ⑩ 관료적 관행 극복, ⑪이익분배의 윤리성·투명성 강화로 구분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 순서는 사회적가치의 문항 순서와 같다.

(1)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정도는 11개 문항 평균 3.2점(5점만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⑪이익분배의 윤리성, 투명성강화가 3.6점으로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③취약계층 안정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3.5점,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 ⑤선한 영향력 실현 및 확산이 각각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⑦혁신 활동 강화, ⑧공유가치 창출 추진 활동 강화 등은 2.8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업종은 ⑪이익분배의 윤리성, 투명성강화를 4.0점 수준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②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역시 3.9점 수준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8〉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실천정도(5점 만점)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624	3.2	3.4	3.5	3.3	3.3	3.2	2.8	2.8	3.1	2.9	3.6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3.1	3.3	3.3	3.2	3.3	3.1	2.8	2.8	3.0	2.8	3.6
	3인-5인 미만	256	3.1	3.4	3.5	3.3	3.3	3.2	2.8	2.8	3.0	2.9	3.6
	5인-10인 미만	163	3.3	3.5	3.6	3.2	3.3	3.1	2.7	2.9	3.1	3.0	3.7
	10인-15인 미만	18	3.5	3.9	4.1	3.4	3.7	3.4	3.1	2.9	3.2	3.2	3.9
	15인-30인 미만	13	3.3	3.9	3.9	3.5	3.5	3.4	3.1	2.9	3.2	3.2	4.0
	30인 이상	10	3.5	4.0	3.7	3.7	3.5	3.4	2.6	2.8	3.2	3.4	3.8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3.4	3.6	3.6	3.4	3.4	3.4	2.8	2.9	3.1	3.1	3.7
	2010년-2015년	175	3.3	3.5	3.6	3.3	3.4	3.1	2.8	2.9	3.1	2.9	3.7
	2016년-2020년	184	3.1	3.3	3.4	3.2	3.2	3.1	2.6	2.7	2.9	2.9	3.5
	2020년 후	135	3.1	3.3	3.4	3.2	3.2	3.0	2.9	2.9	3.1	3.0	3.7
사업자	개인	270	3.0	3.1	3.2	3.2	3.2	3.0	2.7	2.7	2.9	2.8	3.5
	법인	354	3.4	3.7	3.7	3.3	3.4	3.2	2.8	2.9	3.2	3.1	3.7
업종	생산·가공	109	3.1	3.4	3.4	3.2	3.2	2.9	2.6	2.7	2.9	2.8	3.4
	집수리	135	3.4	3.6	3.6	3.5	3.5	3.5	2.9	3.0	3.2	3.1	3.7
	세탁·청소	121	3.2	3.4	3.5	3.1	3.2	3.1	2.9	2.9	3.1	2.9	3.5
	배송·운전	96	3.1	3.4	3.5	3.3	3.3	3.2	2.8	2.8	3.0	3.0	3.8
	음식점	68	3.0	3.3	3.2	3.2	3.2	3.0	2.7	2.8	3.0	2.9	3.5
	유통·판매	48	2.9	3.3	3.3	3.1	3.0	2.8	2.7	2.6	2.8	2.9	3.7
	사회서비스	32	3.6	3.9	3.8	3.5	3.6	3.4	2.8	2.9	3.3	3.1	4.0
	재활용·환경	8	3.1	3.0	3.3	3.8	3.6	3.0	2.8	2.9	3.0	3.1	3.5
	기타	7	3.1	2.9	3.1	3.7	3.4	3.4	3.1	3.1	3.6	3.0	4.3
소재지	서울	87	3.1	3.3	3.4	3.2	3.2	2.9	2.6	2.7	2.9	2.7	3.6
	부산	46	3.2	3.2	3.3	3.2	3.2	3.1	2.7	2.8	3.0	2.9	3.5
	대구	24	3.2	3.3	3.5	3.4	3.3	3.0	2.9	3.1	3.2	3.3	3.8
	인천	35	3.4	3.7	3.7	3.3	3.5	3.3	3.0	3.0	3.0	3.2	3.8
	광주	18	3.2	3.6	3.7	3.3	3.6	3.3	3.1	3.0	3.1	3.0	3.7
	대전	15	3.1	3.3	3.3	3.2	3.5	3.3	2.7	2.8	3.4	3.1	3.6
	울산	14	3.4	3.4	3.6	3.4	3.3	3.0	2.9	3.1	3.5	2.9	3.7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경기	91	3.1	3.6	3.6	3.3	3.3	3.0	2.8	2.9	3.1	2.9	3.7
	강원	31	3.3	3.4	3.5	3.4	3.3	3.1	2.8	2.8	3.0	3.0	3.7
	충북	20	3.3	3.6	3.4	3.2	3.4	3.2	2.9	2.8	3.0	3.1	3.4
	충남(세종)	39	3.3	3.7	3.7	3.2	3.3	3.3	2.9	2.9	3.1	3.1	3.6
	전북	55	3.1	3.3	3.4	3.2	3.3	3.2	2.8	2.9	3.2	3.0	3.6
	전남	45	3.3	3.2	3.5	3.4	3.4	3.5	2.8	2.8	2.9	2.8	3.4
	경북	31	3.3	3.5	3.4	3.6	3.6	3.6	2.9	3.0	3.3	3.2	3.7
	경남	55	3.0	3.4	3.4	3.0	3.1	3.1	2.6	2.8	2.9	2.8	3.6
	제주	18	3.4	3.4	3.8	3.4	3.6	3.2	2.9	2.8	2.7	2.9	3.6

(2) 중요한 사회적가치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③취약계층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②취약계층 일자리 확대(47.1%),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16.7%),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13.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이, 법인사업자는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를 중요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주목할 만하다.

업종 중 재활·환경에서는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 집수리에서는 ⑨전문직업적 역량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회적가치(1순위+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624	16.7	47.1	74.2	13.6	11.1	10.6	1.1	4.3	12.0	0.5	8.8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16.5	43.9	67.1	17.1	8.5	12.8	1.2	7.9	15.9	1.2	7.9
	3인-5인 미만	256	17.2	45.7	75.0	15.2	12.1	10.9	0.8	3.1	12.1	0.0	7.8
	5인-10인 미만	163	16.0	50.9	79.1	8.0	11.0	8.6	1.8	3.1	10.4	0.6	10.4
	10인-15인 미만	18	16.7	50.0	77.8	16.7	5.6	11.1	0.0	0.0	5.6	0.0	16.7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5인-30인 미만	13	7.7	69.2	84.6	7.7	15.4	7.7	0.0	0.0	0.0	0.0	7.7
	30인 이상	10	30.0	40.0	70.0	10.0	30.0	0.0	0.0	10.0	0.0	0.0	1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20.8	37.7	73.1	15.4	12.3	13.8	2.3	3.1	12.3	0.8	8.5
	2010년-2015년	175	20.6	48.6	75.4	11.4	8.0	7.4	0.6	3.4	13.1	0.6	10.9
	2016년-2020년	184	15.8	52.7	73.4	15.2	12.5	9.8	0.0	5.4	9.2	0.5	5.4
	2020년 후	135	8.9	46.7	74.8	12.6	11.9	12.6	2.2	5.2	14.1	0.0	11.1
사업자	개인	270	15.9	45.2	67.0	18.5	11.1	11.1	1.5	5.9	14.8	0.4	8.5
	법인	354	17.2	48.6	79.7	9.9	11.0	10.2	0.8	3.1	9.9	0.6	9.0
업종	생산·가공	109	20.2	47.7	73.4	13.8	9.2	5.5	0.9	4.6	11.9	1.8	11.0
	집수리	135	18.5	36.3	74.1	16.3	11.1	17.0	1.5	2.2	17.0	0.7	5.2
	세탁·청소	121	17.4	52.9	71.9	11.6	8.3	13.2	1.7	3.3	11.6	0.0	8.3
	배송·운전	96	14.6	50.0	78.1	8.3	8.3	11.5	0.0	10.4	9.4	0.0	9.4
	음식점	68	7.4	50.0	77.9	16.2	19.1	5.9	0.0	4.4	13.2	0.0	5.9
	유통·판매	48	10.4	52.1	72.9	14.6	14.6	10.4	2.1	2.1	4.2	0.0	16.7
	사회서비스	32	31.3	46.9	68.8	9.4	15.6	0.0	0.0	3.1	12.5	0.0	12.5
	재활용·환경	8	0.0	50.0	100.0	37.5	0.0	0.0	12.5	0.0	0.0	0.0	0.0
	기타	7	28.6	42.9	42.9	28.6	14.3	14.3	0.0	0.0	14.3	0.0	14.3
소재지	서울	87	19.5	47.1	70.1	13.8	11.5	5.7	3.4	9.2	12.6	0.0	6.9
	부산	46	21.7	41.3	56.5	15.2	13.0	15.2	0.0	4.3	17.4	0.0	15.2
	대구	24	20.8	50.0	75.0	20.8	8.3	12.5	0.0	0.0	4.2	0.0	8.3
	인천	35	11.4	51.4	80.0	14.3	14.3	2.9	0.0	5.7	8.6	0.0	11.4
	광주	18	11.1	50.0	77.8	22.2	5.6	5.6	5.6	5.6	0.0	0.0	16.7
	대전	15	20.0	73.3	80.0	6.7	13.3	6.7	0.0	0.0	0.0	0.0	0.0
	울산	14	0.0	64.3	85.7	7.1	7.1	14.3	0.0	0.0	7.1	7.1	7.1
	경기	91	18.7	51.6	79.1	12.1	7.7	9.9	0.0	4.4	9.9	0.0	6.6
	강원	31	25.8	25.8	74.2	22.6	12.9	16.1	0.0	3.2	6.5	0.0	12.9
	충북	20	20.0	65.0	75.0	10.0	5.0	5.0	5.0	0.0	10.0	0.0	5.0
	충남(세종)	39	7.7	64.1	74.4	2.6	7.7	15.4	0.0	2.6	17.9	0.0	7.7
	전북	55	12.7	29.1	78.2	9.1	14.5	10.9	1.8	3.6	21.8	3.6	14.5
	전남	45	15.6	42.2	66.7	13.3	15.6	17.8	2.2	6.7	20.0	0.0	0.0
	경북	31	29.0	35.5	71.0	12.9	12.9	6.5	0.0	3.2	19.4	0.0	9.7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경남	55	14.5	49.1	76.4	20.0	7.3	14.5	0.0	3.6	7.3	0.0	7.3
	제주	18	0.0	50.0	88.9	16.7	22.2	5.6	0.0	0.0	0.0	0.0	16.7

2)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제적 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산, 지출비용,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증가정도를 질문한 결과(매우감소-감소-유지-증가-매우증가)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산 모두 유지(3점)보다 아래인 2.9점을 보였다. 반면 지출비용(3.4점)과 부채(3.0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변화가 2.8점으로 나타나 감소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변화가 3.1점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운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3.2점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21년 대비 22년 경제적 성과 변화(5점)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출비용	자산	부채
전체		541	2.9	2.8	2.7	3.4	2.8	3.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41	2.9	2.7	2.7	3.5	2.8	2.9
	3인-5인 미만	214	2.9	2.7	2.7	3.4	2.7	2.9
	5인-10인 미만	146	3.0	2.8	2.8	3.5	2.9	3.0
	10인-15인 미만	18	3.2	2.7	2.7	3.6	3.1	3.1
	15인-30인 미만	12	3.3	3.2	3.2	3.3	3.2	2.9
	30인 이상	10	3.2	2.2	2.9	3.0	2.6	3.2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0	2.8	2.8	3.5	2.9	3.1
	2010년-2015년	175	2.9	2.7	2.7	3.4	2.8	3.0
	2016년-2020년	184	2.9	2.7	2.8	3.4	2.7	2.8
	2020년 후	52	3.1	2.9	2.8	3.3	2.8	2.9
사업자	개인	227	2.8	2.6	2.6	3.4	2.6	3.0
	법인	314	3.1	2.8	2.8	3.5	2.9	3.0
업종	생산·가공	101	2.9	2.7	2.7	3.4	2.8	2.9

	구분	사례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출비용	자산	부채
	집수리	125	2.9	2.8	2.7	3.4	2.9	3.2
	세탁·청소	107	2.9	2.8	2.8	3.4	2.7	2.8
	배송·운전	87	3.2	3.0	3.0	3.5	3.0	2.8
	음식점	44	2.7	2.7	2.5	3.5	2.5	2.8
	유통·판매	32	2.8	2.7	2.4	3.5	2.4	3.3
	사회서비스	31	3.1	2.7	2.7	3.7	3.1	3.1
	재활용·환경	8	2.3	2.1	2.4	3.1	2.5	3.1
	기타	6	3.2	2.8	3.0	3.5	2.5	2.3
소재지	서울	70	2.9	2.7	2.7	3.3	2.7	2.9
	부산	38	2.8	2.6	2.5	3.3	2.6	3.0
	대구	17	3.4	3.2	3.1	3.5	3.1	2.8
	인천	32	3.3	3.1	2.9	3.7	3.3	2.8
	광주	16	3.1	2.9	2.8	3.7	2.8	3.1
	대전	14	3.1	2.8	2.9	3.4	2.8	2.8
	울산	10	2.5	2.7	2.6	3.1	2.6	3.3
	경기	81	2.9	2.8	2.7	3.3	2.8	3.1
	강원	27	2.7	2.5	2.6	3.6	2.9	3.3
	충북	19	3.2	3.1	3.0	3.1	2.8	3.1
	충남(세종)	37	3.0	2.7	2.8	3.6	3.0	3.0
	전북	50	2.9	2.6	2.5	3.3	2.7	2.9
	전남	40	3.1	3.0	2.8	3.6	2.9	3.0
	경북	27	2.8	2.7	2.6	3.5	2.5	2.9
	경남	49	2.8	2.6	2.7	3.5	2.6	2.9
	제주	14	3.1	2.6	2.7	3.4	3.0	3.0

주 : 2022년 이전 창업한 자활기업만 응답

3)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활기업이 지역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성과를 질문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지역 내 사회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 고용 창출 기여가 3.1점으로 유지를 기준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빈곤율 감소 기여(3.0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기여(3.0점), 공공성 있는 사업 비중(3.0점)의 증가는 1년사이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동에 기여, 지역 소득 증가에 기여 등은 2.9점으로 유지보다는 감소의 추세로 나타났다. 감소의 추세가 있는 지역창업 기여와 지역 소득 기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법인사업자는 3.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2.7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사회서비스업(3.4점)은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 기여가 증가추세로 나타나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21〉 21년 대비 22년 사회적 성과 변화(5점)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수	지역창업	지역소득	지역고용	빈곤감소	공동체확산	공공성사업
전체		541	2.9	2.9	3.1	3.0	3.0	3.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41	2.9	2.9	3.0	2.9	3.0	2.9
	3인-5인 미만	214	2.8	2.8	3.0	2.9	2.9	3.0
	5인-10인 미만	146	2.9	2.9	3.1	3.0	3.0	3.0
	10인-15인 미만	18	3.3	3.1	3.4	3.2	3.3	3.5
	15인-30인 미만	12	2.8	3.5	3.6	3.2	3.3	3.1
	30인 이상	10	2.8	3.1	3.3	3.3	3.1	3.1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9	3.0	3.2	3.0	3.1	3.1
	2010년-2015년	175	2.8	2.8	3.0	2.9	3.0	3.0
	2016년-2020년	184	2.8	2.8	3.0	2.9	2.9	2.9
	2020년 후	52	2.9	3.0	3.2	3.1	3.1	3.1
사업자	개인	227	2.7	2.7	2.9	2.9	2.9	2.9
	법인	314	3.0	3.0	3.2	3.0	3.1	3.1
업종	생산·가공	101	2.8	2.8	2.9	2.9	2.9	2.9
	집수리	125	3.0	3.0	3.1	3.0	3.0	3.2
	세탁·청소	107	2.8	2.9	2.9	2.9	2.9	2.9
	배송·운전	87	3.0	3.0	3.3	3.1	3.1	3.2
	음식점	44	2.8	2.9	2.9	2.8	2.9	2.9
	유통·판매	32	2.6	2.7	3.1	3.2	3.1	2.8

	구분	사례수	지역창업	지역소득	지역고용	빈곤감소	공동체확산	공공성사업
	사회서비스	31	2.8	3.1	3.4	3.1	3.2	3.1
	재활용·환경	8	2.5	2.5	2.9	2.6	3.0	2.6
	기타	6	3.2	3.0	3.0	3.0	3.2	3.2
소재지	서울	70	2.7	2.8	2.9	2.9	3.0	2.9
	부산	38	2.9	2.8	2.9	2.8	3.0	3.0
	대구	17	3.0	3.1	3.3	3.2	3.1	3.1
	인천	32	3.0	3.0	3.3	3.1	3.1	3.3
	광주	16	2.9	3.0	3.1	3.0	3.0	3.3
	대전	14	3.0	3.1	3.1	2.9	3.1	3.1
	울산	10	2.7	2.7	3.1	2.9	2.8	2.7
	경기	81	2.9	2.9	3.2	3.1	3.0	2.9
	강원	27	2.9	2.9	3.0	2.9	3.0	3.1
	충북	19	3.0	3.1	3.2	2.9	3.1	3.1
	충남(세종)	37	2.9	3.1	3.2	3.1	3.0	3.1
	전북	50	2.9	2.8	2.9	2.9	3.0	2.8
	전남	40	2.9	3.0	3.0	2.9	2.9	3.1
	경북	27	2.8	3.0	3.1	3.0	3.2	3.2
	경남	49	2.7	2.7	2.9	2.9	2.8	2.9
	제주	14	2.8	3.0	3.2	3.2	3.1	3.1

주 : 2022년 이전 창업한 자활기업만 응답

5. 자활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1)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자활기업이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지원받은 지원제도와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67.0%는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40.2%), 컨설팅(35.9%), 인프라지원(35.7%)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한 도움 정도는 4.6점(5점만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인

프라 지원에 대한 도움정도는 각각 4.0점, 4.0점, 4.5점으로 나타나 도움 정도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에 지원경험(29.8%)이 높았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41.7%)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기업의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최근 3년간 외부 지원 받은 경험(중복) 및 도움정도(5점)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융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전체		594	67.0	4.6	29.1	4.5	35.9	4.0	40.2	4.0	20.0	4.3	35.7	4.5	11.6	4.4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57	60.5	4.7	26.8	4.4	31.8	4.0	41.4	3.9	17.8	4.3	33.8	4.5	8.9	4.1
	3인-5인 미만	238	70.6	4.7	29.8	4.6	36.1	4.1	42.0	4.1	20.2	4.1	31.1	4.3	12.2	4.3
	5인-10인 미만	159	68.6	4.5	28.3	4.5	39.0	4.0	38.4	3.9	22.0	4.7	46.5	4.6	10.7	4.3
	10인-15인 미만	18	61.1	5.0	38.9	4.9	38.9	4.3	27.8	4.2	11.1	4.5	22.2	4.8	16.7	4.7
	15인-30인 미만	12	58.3	4.6	16.7	5.0	33.3	4.0	25.0	4.7	33.3	4.0	41.7	4.6	16.7	4.5
	30인 이상	10	80.0	4.8	60.0	4.0	40.0	2.5	50.0	3.6	20.0	4.0	20.0	4.0	40.0	5.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51.5	4.7	23.8	4.5	30.8	4.1	29.2	4.3	10.8	4.1	37.7	4.5	10.8	4.4
	2010년-2015년	175	53.7	4.6	26.9	4.5	28.6	3.8	39.4	3.6	11.4	4.1	25.7	4.4	10.3	4.1
	2016년-2020년	184	81.0	4.6	28.8	4.5	38.0	3.9	41.8	3.8	23.9	4.2	35.9	4.4	9.8	4.1
	2020년 후	105	83.8	4.8	40.0	4.6	50.5	4.3	52.4	4.5	39.0	4.7	49.5	4.7	18.1	4.9
사업자	개인	254	62.2	4.6	22.0	4.3	29.1	3.9	44.5	3.9	20.5	4.1	31.5	4.4	10.6	4.0
	법인	340	70.6	4.7	34.4	4.6	40.9	4.1	37.1	4.0	19.7	4.5	38.8	4.5	12.4	4.6
업종	생산·가공	108	72.2	4.7	31.5	4.4	35.2	4.0	38.9	3.9	27.8	4.3	38.9	4.4	15.7	4.1
	집수리	131	53.4	4.5	23.7	4.5	34.4	3.8	33.6	3.9	6.1	4.5	26.7	4.6	11.5	4.4
	세탁·청소	114	70.2	4.6	35.1	4.5	38.6	4.2	43.9	4.2	23.7	4.3	47.4	4.5	7.9	4.1
	배송·운전	95	68.4	4.8	21.1	4.6	29.5	3.9	42.1	4.0	17.9	4.2	31.6	4.3	9.5	4.1
	음식점	57	75.4	4.6	35.1	4.6	56.1	4.1	45.6	3.9	29.8	4.5	47.4	4.5	12.3	4.7
	유통·판매	43	79.1	4.7	27.9	4.3	37.2	3.9	48.8	4.1	27.9	4.3	23.3	4.4	14.0	4.5
	사회서비스	32	59.4	4.9	34.4	4.7	28.1	4.1	28.1	3.6	21.9	4.3	28.1	4.6	18.8	5.0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융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재활용·환경	8	62.5	4.2	37.5	4.3	12.5	5.0	37.5	3.7	12.5	3.0	25.0	5.0	0.0	.
	기타	6	66.7	5.0	33.3	5.0	0.0	.	66.7	3.8	0.0	.	50.0	4.3	0.0	.
소재지	서울	81	70.4	4.8	32.1	4.4	23.5	4.0	43.2	4.2	23.5	4.3	44.4	4.4	7.4	4.8
	부산	42	57.1	4.5	28.6	4.4	40.5	3.5	50.0	3.4	16.7	4.1	31.0	4.4	9.5	4.0
	대구	21	66.7	4.9	28.6	4.5	42.9	3.6	23.8	4.6	23.8	4.6	19.0	5.0	9.5	5.0
	인천	34	67.6	4.7	44.1	4.9	44.1	3.7	20.6	3.6	17.6	4.2	41.2	4.7	8.8	4.7
	광주	18	72.2	5.0	27.8	5.0	22.2	3.8	33.3	5.0	16.7	3.7	27.8	4.4	5.6	3.0
	대전	15	60.0	4.8	33.3	4.6	66.7	3.9	66.7	4.1	26.7	4.8	46.7	4.6	6.7	5.0
	울산	12	75.0	4.2	50.0	3.8	58.3	4.3	58.3	4.3	8.3	4.0	41.7	4.6	16.7	4.0
	경기	87	75.9	4.7	29.9	4.4	41.4	4.3	55.2	4.0	17.2	4.1	35.6	4.3	14.9	3.9
	강원	28	50.0	4.6	32.1	4.4	39.3	4.0	42.9	4.3	25.0	4.7	32.1	4.9	35.7	4.5
	충북	19	68.4	4.8	21.1	4.8	42.1	4.4	36.8	3.7	15.8	4.3	57.9	4.6	10.5	5.0
	충남(세종)	39	76.9	4.7	38.5	4.7	61.5	4.3	41.0	4.1	12.8	5.0	38.5	4.6	15.4	5.0
	전북	53	52.8	4.4	17.0	4.0	22.6	3.8	39.6	3.9	13.2	3.9	34.0	4.3	15.1	4.1
	전남	44	59.1	4.5	22.7	5.0	27.3	4.0	20.5	3.6	6.8	5.0	25.0	4.7	11.4	4.6
	경북	29	58.6	4.5	34.5	4.4	31.0	4.0	37.9	3.9	20.7	4.3	31.0	4.3	3.4	4.0
	경남	55	74.5	4.5	14.5	3.9	27.3	4.0	32.7	3.9	29.1	3.9	29.1	4.2	7.3	3.5
	제주	17	82.4	4.8	41.2	4.9	29.4	4.0	35.3	4.0	70.6	4.8	47.1	5.0	5.9	5.0

주 : 2023년 창업한 자활기업은 제외

2)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력확보가 76.9점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자금조달 73.6점, 경영방법 66.8점, 판로 6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자금조달(79.7점)을 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업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100점 기준)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수	자금조달	기술향상	인력확보	사업장 위치	판로	행정절차	경영방법	기타
전체		624	73.6	58.2	76.9	59.1	63.9	61.2	66.8	89.7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73.2	57.2	76.7	58.5	64.5	62.2	67.5	75.0
	3인-5인 미만	256	75.9	57.0	76.4	60.1	63.1	61.9	67.3	90.0
	5인-10인 미만	163	71.3	59.5	77.5	58.1	64.3	59.4	65.0	91.7
	10인-15인 미만	18	66.7	62.5	76.4	51.4	69.4	62.5	66.7	100.0
	15인-30인 미만	13	69.2	63.5	80.8	59.6	63.5	51.9	69.2	-
	30인 이상	10	75.0	70.0	80.0	75.0	62.5	67.5	70.0	75.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71.4	58.5	78.5	56.0	65.6	62.1	67.9	85.0
	2010년-2015년	175	76.3	58.1	76.9	58.4	65.3	63.3	66.3	96.4
	2016년-2020년	184	74.2	60.3	77.9	59.8	64.0	60.3	66.4	85.0
	2020년 후	135	71.3	55.2	74.1	62.2	60.6	58.9	67.0	-
사업자	개인	270	74.4	56.1	75.8	58.8	61.9	61.3	65.0	85.0
	법인	354	72.9	59.8	77.7	59.4	65.5	61.2	68.2	91.7
업종	생산·가공	109	74.3	59.2	78.2	59.6	63.5	61.0	64.2	95.0
	집수리	135	76.5	61.7	79.3	54.3	62.8	60.4	67.2	89.3
	세탁·청소	121	71.9	57.0	75.0	57.4	70.9	62.4	70.0	-
	배송·운전	96	68.5	58.9	79.4	59.1	59.6	58.9	64.3	83.3
	음식점	68	71.7	52.9	72.1	63.2	63.2	62.1	68.8	-
	유통·판매	48	79.7	53.1	76.0	63.5	57.3	60.4	60.4	-
	사회서비스	32	66.4	63.3	76.6	65.6	66.4	62.5	73.4	87.5
	재활용·환경	8	90.6	50.0	68.8	65.6	75.0	75.0	68.8	-
	기타	7	92.9	60.7	71.4	67.9	60.7	67.9	71.4	-
소재지	서울	87	73.9	54.0	74.7	62.9	65.5	59.5	67.5	-
	부산	46	76.6	53.8	71.7	57.6	57.1	59.2	65.8	-
	대구	24	75.0	66.7	74.0	62.5	69.8	69.8	75.0	-
	인천	35	73.6	64.3	77.9	53.6	64.3	55.0	64.3	83.3
	광주	18	68.1	50.0	76.4	58.3	58.3	56.9	56.9	-
	대전	15	75.0	51.7	76.7	60.0	70.0	66.7	73.3	-
	울산	14	76.8	60.7	76.8	57.1	80.4	66.1	73.2	-

	구분	사례수	자금조달	기술향상	인력확보	사업장 위치	판로	행정절차	경영방법	기타
	경기	91	75.8	57.7	78.6	59.1	66.2	64.8	67.3	87.5
	강원	31	77.4	56.5	72.6	63.7	64.5	63.7	62.9	-
	충북	20	65.0	53.8	70.0	50.0	63.8	47.5	60.0	75.0
	충남(세종)	39	75.6	58.3	82.1	59.6	64.7	60.9	67.3	100.0
	전북	55	73.2	59.6	80.0	59.1	61.8	60.9	65.5	100.0
	전남	45	72.8	63.3	80.6	56.7	60.0	59.4	71.7	91.7
	경북	31	71.0	55.7	83.1	64.5	59.7	63.7	64.5	-
	경남	55	69.1	62.7	75.5	57.7	63.6	63.2	69.6	91.7
	제주	18	72.2	62.5	73.6	55.6	63.9	59.7	58.3	-

3)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 정책

자활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85.3%)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지원(56.1%), 사업개발비(50.5%), 공간/임대 지원(46.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5-10인 규모인 경우 인프라 지원(61.3%)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인증받은 기업인 경우 컨설팅지원(21.5%)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모든 기업이 인건비 지원(100%)을 희망하였으며, 집수리 업종은 투자·융자 지원(42.2%)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우선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융자	기타
전체		624	85.3	50.5	14.9	15.2	46.8	56.1	28.7	2.6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89.0	54.3	11.6	13.4	47.0	55.5	28.0	1.2
	3인-5인 미만	256	86.3	50.8	15.2	17.2	45.3	52.7	28.9	3.5
	5인-10인 미만	163	81.0	43.6	18.4	17.2	47.9	61.3	29.4	1.2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 개별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 융자	기타
	10인-15인 미만	18	83.3	72.2	5.6	5.6	44.4	61.1	22.2	5.6
	15인-30인 미만	13	92.3	38.5	30.8	-	46.2	69.2	15.4	7.7
	30인 이상	10	60.0	70.0	-	-	70.0	40.0	50.0	1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79.2	46.2	12.3	11.5	48.5	63.8	36.9	1.5
	2010년-2015년	175	83.4	50.3	10.9	18.9	46.9	56.6	29.7	3.4
	2016년-2020년	184	90.8	53.3	15.8	14.7	47.3	52.2	22.8	3.3
	2020년 후	135	85.9	51.1	21.5	14.8	44.4	53.3	27.4	1.5
사업자	개인	270	84.8	48.9	18.5	16.3	47.8	50.7	30.0	3.0
	법인	354	85.6	51.7	12.1	14.4	46.0	60.2	27.7	2.3
업종	생산·가공	109	80.7	49.5	14.7	10.1	50.5	61.5	33.0	-
	집수리	135	84.4	37.8	7.4	17.8	45.9	63.0	42.2	1.5
	세탁·청소	121	85.1	57.0	19.8	19.8	39.7	59.5	15.7	3.3
	배송·운전	96	84.4	47.9	15.6	15.6	50.0	62.5	19.8	4.2
	음식점	68	88.2	60.3	19.1	7.4	45.6	57.4	20.6	1.5
	유통·판매	48	100.0	50.0	18.8	18.8	41.7	27.1	35.4	8.3
	사회서비스	32	81.3	59.4	15.6	18.8	59.4	28.1	34.4	3.1
	재활용·환경	8	87.5	75.0	12.5	-	62.5	12.5	50.0	-
	기타	7	71.4	71.4	-	14.3	57.1	57.1	28.6	-
소재지	서울	87	93.1	57.5	13.8	16.1	54.0	39.1	23.0	3.4
	부산	46	84.8	58.7	17.4	17.4	39.1	45.7	30.4	6.5
	대구	24	95.8	58.3	16.7	4.2	41.7	50.0	33.3	-
	인천	35	77.1	45.7	20.0	17.1	42.9	68.6	17.1	11.4
	광주	18	83.3	44.4	16.7	5.6	44.4	72.2	33.3	-
	대전	15	73.3	40.0	6.7	13.3	60.0	73.3	33.3	-
	울산	14	85.7	64.3	7.1	7.1	57.1	50.0	28.6	-
	경기	91	87.9	56.0	12.1	17.6	45.1	49.5	30.8	1.1
	강원	31	87.1	51.6	9.7	6.5	51.6	67.7	25.8	-
	충북	20	75.0	50.0	30.0	20.0	45.0	50.0	30.0	-
	충남(세종)	39	84.6	41.0	10.3	15.4	38.5	56.4	51.3	2.6
	전북	55	80.0	41.8	12.7	10.9	56.4	67.3	30.9	-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 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 융자	기타
	전남	45	84.4	53.3	22.2	17.8	35.6	57.8	22.2	6.7
	경북	31	74.2	61.3	19.4	19.4	38.7	58.1	29.0	-
	경남	55	87.3	34.5	14.5	20.0	49.1	70.9	21.8	1.8
	제주	18	88.9	38.9	11.1	16.7	55.6	55.6	33.3	-

Ⅳ. 결론

이번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자활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로 그 의의가 있다. 응답한 기업은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93.4%)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초기 인증받은 자활기업이 20.8% 되며, 약 30%의 기업이 2016년~2020년 사이에 인증받은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56.7%)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배송·운전(15.%) 등 대표 자활사업단의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이어가고 있다. 실제 구성원의 응답기업의 30%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3.5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라 응답하였다.

자활기업은 향후 1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것이지만, 몇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자활기업의 사업장이 임차형태(91.8%)였으며, 그 중 약 70%가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평균 월 88만원의 월세는 5인 미만의 영세 자활기업에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진다. 또한 홍보가 가능한 구성원이 없어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49.2%) 소비자(B2C)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높음(43.9%)에도 홍보아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활기업에게 지원한 다양한 제도 중에 인건

비 지원사업이 이용경험(67.0%)이 많고, 도움정도(만족도 4.6점/5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울 때 정부정책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28.0%) 운영자금(83.4%)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중에 행정 서류를 제출(16.3%)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2.7%)도 어렵게 느껴졌다.

따라서 자활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확보의 어려움(76.9점/100점), 자금조달(73.6점/100점), 경영방법(66.8점/100점) 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성숙도별 필요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정교한 지원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자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초기 자활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 홍보, 회계, 노무 등 전문인력과 사업종류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업종에 따라 사업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자활사업단에서 성장한 자활기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지역공산품, 농산물 등을 가공하는 업종의 경우 개발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아이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사업을 지속할수 없게 된다. 셋째 자활기업 인프라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활기업의 경우 청소, 세탁, 배송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여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근간이되는 기관의 미션을 공유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의 협력으로 연계정도를 강화하여 성장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토론1**

길현종 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 두 발표,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잘 들었습니다.

- 본 조사는 그간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선도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본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 자활의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향후 자활 영역에서 실증에 기반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발표는 현황을 기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별하게 논쟁이 될만한 요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던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태를 알 수 있어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그래도, 토론이라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상 발표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술적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대표성이 궁금했습니다.

- 발표 내용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질문을 드리는데, 두 실태조사 결과의 설득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이들 실태조사의 대표성 검증 결과가 우선 제시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인증 년도, 인증 유형, 지역 등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을 연구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제가 해당 연구 연구책임자로 조사 관리를 매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영역 역시 이 대표성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지금 이루어진 조사가 대표적인 구분 기준에 따라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해 보셨는지, 본 발표를 대표성 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발표 내용과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자활 성과 문항에 반복해 응답한 응답자의 점수 차이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부족해 약간 이해가 어렵지만, 발표자는 점수 변화율과 평균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결과 모두 2022년과 2023년 사이 극적인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약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말씀 주십시오.
- 이 결과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심층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즉,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참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개선 성과를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비중은 전체 참여자 중 얼마나 되는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 등 발표에 제시된 심층분석을 넘어선 또 다른 심층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가 이전에 수행한 연구 경험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는 여러 기준에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자활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검증해 줄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실증을 통한 정책개선, 즉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활전략 수립 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자는 전문인력 지원강화, 업종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강화, 인프라 지원강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현재보다 강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자활기업이 다른 일반 기업과 다른 특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은 아마도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발현하지 못한다면, 현재보다 강화된 정부 지원 정당성은 상당 부분 약화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저자의 주장처럼 자활기업에 좀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할 것으로, 즉, 자활기업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음을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실태조사 결과 자활기업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3.5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라 응답하였”지만, 사실 자활기업 내 수급자·차상위 인원은 총인원 평균인 11.5명 중 3.7명에 불과하며, 특히 오래된 기업일수록 취약계층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0년 전 기업 평균 22.0명 중 수급자·차상위는 3.6명).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핵심 사회적가치라고 생각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가치는 자활기업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가치가 잘 구현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지원의 논의보다는 자활기업이 구현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이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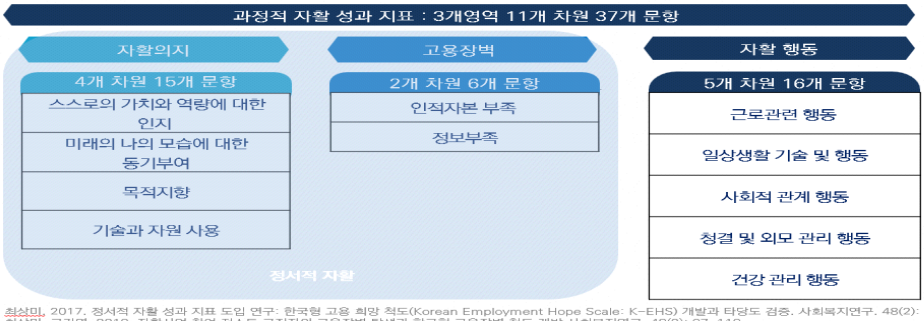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토론2**

최상미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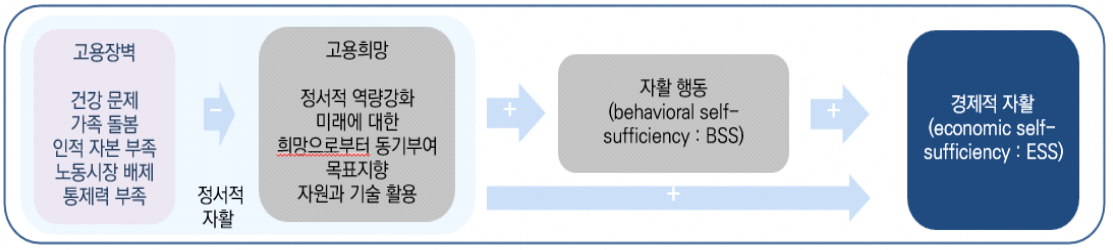
1.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관련

○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정착과 안정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 이해를 통해 자활사업 방향 및 내용 조정의 근거
- 자활사업의 성과 도출 : 결과로서의 경제적 성과 외에도 참여자 관점, 과정적 관점에서의 자활사업의 성과 도출
  : 자활 의지 향상, 고용 장벽 완화, 자활 행동 향상 모두 자활사업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 자활 의지 중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고용 장벽 완화 중 '인적 자본 향상', 자활 행동 중 '근로관련행동' 가장 크게 변화함
- 근로미약 참여자,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의 증가로 이들의 근로와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적 지원의 중요성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자활의 중요한 성과로 잡을 필요 있음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최상미, 2019. 자활행동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사회복지행정학회지, 21(3) :75-100
권경휘, 최상미, 조성희, 한은영, 박송이, 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Hong, P. Y. P., Choi, S., & Key, W. (2018).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 bottom-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
최상미 (2019) 자활 행동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 21(3) : 75-100

○ 실태조사에 기반한 몇 가지 제안

첫째, 자활역량평가 점수와 사업단 배치 정교화

- 현재 사업단 배치 시에는 역량과 욕구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근로 의욕을 고양하는 데 제한적
- 자활역량평가지표 정교화와 함께 역량과 의지, 관심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업단 배치 체계 구축 필요
- 향후, 현재 속한 사업단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단인지 (역량, 관심·욕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추가 제안

둘째, 참여 기간이 자활사업의 고민으로 드러남. 자활 참여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고민 필요

-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자활에 안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또한 참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활 성과(정서적 자활과 자활행동 측면)도 낮아지는 경향
  : 자활 사업에 있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없는 경우 76%
  : 자활 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구직 안 함; 자활의지 낮아짐; 고용장벽 극복에 유의한 영향 없음
  : 경력단절 기간의 장기화 : 대부분 일경험 있으나(75.4%), 대부분 3년 이상 경력단절, 1/4은 8년 이상

- 노동시장의 변화,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자활급여 상향 등 제도적 요인도 존재함
  : 관련하여 만족도, 급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활급여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함.
- 또한 자활사업 참여 기간에 따른 특성 차이 존재하므로 참여 기간에 따라 다른 접근에 대한 고민 필요
  : 1년 미만 vs. 1년 ~3년 vs. 3년 이상

셋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필요성

- 근로미약 참여자 및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다차원적 장벽 가진 참여자 증가. 궁극적으로 참여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다루어야 할 필요
  : 일 중단 이유 : 건강(신체, 정신) 28.9%, 가족 돌봄 11.7%, 실직 11.5%
  : 신체적 건강 문제 49%, 우울 증상 51.4%
  : 주거 안정적 52.4%
  : 1인가구 비율 48.1%) : 남성 1인가구 비율 높으며,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 높음
  → 남성 1인가구 일상돌봄, 여성은 자녀돌봄 지원 필요 가능성
  : 의료서비스 필요 시 이용하지 못한 경험 27.5%
  : 2년 내 건강검진 받은 경험 없는 참여자 38.4%
- 지역사회서비스가 점차 다양화, 확대되고 있음. 관련 문제와 욕구를 가진 참여자 지역사회서비스로(지역자율형, 지투, 지자체 자체 사업, 맞돌, 통돌 등)의 적극적 연계 필요
  : 건강운동 관련 – 아동건강관리, 청년신체건강지원, 노인맞춤형운동 등
  : 정신건강 관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성인심리지원, 자살위험군예방 등
  : 발달 관련 –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발달지원 등

: 일상지원 – 일상돌봄서비스, 맞돌, 통돌 등

넷째, 취약 청년 대상 자활 지원하는 핵심 제도이자 전달체계로서 자활 정체성

- 취약 청년 지속적 증가 추세 : 빈곤 청년, 니트 청년, 은둔고립 청년, 가족돌봄
- 빈곤 청년 특성 분석 결과(최상미 외, 2023), 교육 수준 낮을수록, 나이 많을수록, 가족돌봄 할수록(차상위 청년의 10~15% 청년은 가족 돌봄 중), 부모와 거주할수록 취약
- 즉, 근로 및 구직 관련 장벽이 높을수록, 알바 등 불안정 일자리 종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워질수록, 다시 말해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취약함
- 이러한 취약 청년들을 다룰 수 있는 제도는 자활 밖에 없고 가장 적절함. 그러나 청년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없음
- 청년의 경우, 가능한 한 일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적자본 강화, 근로장벽 완화,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자활의지와 의욕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다차원적 지원 필요

→ 자활 사업이 취약 청년의 자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이자 전달체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방향으로 자활 사업 안에 취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다섯째, 당사자 개인 지원에서 가족 지원으로 확대

- 돌봄 필요 (24.8%), 높은 돌봄 부담(6.4점/10점)
- 낮은 가족지지 (4.1/7점), 사회적 자본(2.7/5점), 사회적 관계(1.62점/5점), 네트워크 수준(2.34점/5점)

○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추가적 제안

- 높은 부채 비중 (54.9%) : 40대, 대졸 이상, 참여 기간 1년 미만 부채 비중 높음. 부채가 높은 것은 자산과 역량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반드시 부채가 많은 것이 취약하다는 의미 아님. 주의 깊은 해석 필요

- 필요 생활비 225만원 : 가구원 수에 따른 분석 필요
- 시간제 근로에 대한 높은 욕구 : 돌봄의 경우 고려할 필요 있으나, 그 외에는 연차, 반차, 반반차 제도 도입 등 근로 유연화 방식을 택하고, 정보검색 등 활동을 근로로 포함하더라도 가능한 한 8시간 근로는 유지할 것을 제안

2. 자활기업 실태조사 관련

- 자활기업 정체하고 있음.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기업 창업은 참여자의 궁극적 경제적 자활을 위한 최선의 대안일 수 있음. 그러나 자활기업 활성화 위해서는 제도화 노력 필요
  : 현재 자활기업도 5대 표준화사업 및 정부양곡배송사업 중심
- 사회서비스 다변화,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 방향과 함께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활기업 높은 잠재력 가짐. 2023년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시행하였으며, 2024년 확대할 계획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이용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가능 - 2000년 간병돌봄 사업 자활기업 표준사업으로 지정하여 오랜기간 운영 노하우
  : 저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활용 가능성 큼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토론3**

참여자와 자활기업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이문수 사무총장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는 정책포럼은 흔한 경험은 아니다. 아무튼 자활복지개발원에서 2022년에 5,000명, 2023년에 6,0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점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어 보인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정책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책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은 정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라고 여겨진다.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오랜만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자활기업에 대해 이렇듯 전수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적은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오래된 일이어서 반갑기도 하였다. 자활정보시스템에 사업보고를 마친 9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도 그렇고, 자활기업의 구분을 규모, 인증시기, 사업자, 업종, 소재지별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조가 되는 내용으로 유의미해 보인다. 나아가 이 자료를 기초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하겠다.

두 가지 실태조사 모두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껴지며 실태조사 자료에서 느껴지는 그간의 노고과 수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참여자 실태조사에서 조사 설계에 대한 개요와 내용이 없어서 실제 얼마정도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자활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보고를 마친 938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624개소에 그친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에는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활인프라와의 적극적인 협조등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보통 정책은 향후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방향을 말한다. 그러기에 정책은‘무엇’과‘왜’를 포함하면서‘이상’과‘현실’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실태조사는 그러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렇다고 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한편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편으로 자활 정책은 그 요소인 참여자, 자활프로그램, 자활인프라, 자활의 정책목표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참여자에 대한 오늘의 실태조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 조사자료에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가 3.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동작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우울 증상이 있는 참여자가 51.4%에 달한다는 내용도 자활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내용이 수치화된 듯 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 자활사업 참여실태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6%라는 것은 현재 자활사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족도 관련하여 작업장 안전이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난 점은 다르게 해석할 소지도 있어서 조금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업종 선택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카페와 베이커리가 1순위인점도 현재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만, 한가지 참여주민들이 창업에 대한 욕구보다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높은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조사결과라고 보여진다.

□ 심층분석의 결과는 단순 비교 형태여서 경제적, 정성적, 자활행동의 변화 측정이 그다지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라는 내용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난 미미한 차이를 긍정적 변화라고 보아야 되는지 의문이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책제언에서 역량이 낮고 높음과 단기와 장기참여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내용을 정리한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는 데이터상 구분한 것으로 자활현장에서는 참여주민에게 필요한 욕구나 서비스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아 보인다. 사례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특성상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정책제언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방안의 하나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다만, 정책대상자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전달체계의 역할 그리고 정책목표의 변화와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실태조사를 지속한다면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기간, 인센티브, 사업유형별 만족도, 재참여의 사유, 자활기업 참여저해요인 등 자활제도 개선과 연관성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포함 여부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연령별, 가구별, 성별, 참여기간별 등 참여자 유형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참여자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자활프로그램 운영상의 제도변화에 대한 정책제안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 서문에서 언급한것처럼 이번의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의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이다. 응답률이 66% 정도에 그쳐서 전체적인 통계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의 경향성을 살펴보는데에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 기본현황에서 3~5인가구 41%, 법인사업자가 56.7% 등의 자료는 항상적으로 고민되는 자활기업의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특히 자활기업 사업장의 점유형태가 91.8%가 임차이고 거의 70%가 월세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자활기업 지원정책에서 자활기업의 자산화 사업이 어째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번 자활기업 실태조사에서 인상적인 내용은 네트워크 및 협력 조사이다. 이 항목을 조사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응답기업의 50.5%가 협력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의 협력 경험은 71.1%로 나타난 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한다. 반면 연합회 등에 가입한 기업이 55.3%로 적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나 조금은 아쉬움이 남으며, 여기에 3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80%가 가입하였다고 하니 영세 자활기업 또는 위기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사회적가치 등 자활기업의 조직성과와 정책의 만족도 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영역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활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가치 1순위, 2순위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확대로 나타난 점은 우리 자활기업들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비해, 경제적 성과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등을 유지도 못하고 있고, 지출비용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사례이다.

□ 발제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항상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오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정책포럼이 포럼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번 조사자료를 비탕으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구현해 나아갔으면 한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활기업의 활성화는 자활근로사업의 성장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활성화는 이 모두를 말하기 때문이다.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의 원활한 순환구조가 형성이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자활기업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이나 경영방법,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교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공공부조 영역의 일자리로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2023년 참여자와 자활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고찰

□ 토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앞서 언급한 내용외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신규참여자와 만기참여자에 대한 조사도 향후 정책설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신규 참여자 수가 정체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최초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된다면 향후 자활근로사업의 정책논의시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자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선은 정례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번 조사도 기업의 규모, 인증시기, 사업자별,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문항에 대한 분포도나 욕구를 조사한 것이어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에서는 자활기업의 지역사회 활동, 사회적 공헌도,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근로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자활기업 구성원들의 실태조사까지 포함되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이 역시도 보다 진일보한 자활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대상자이다. 이번 조사와는 결을 조금은 달리하지만 참여주민에 대해 고민되는 대표적인 지점은 ① 근로미약한 참여자가 다수인 점, ② 참여자 확대의 문제와 신규참여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점, ③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④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수의 차이가 없고 차상위가 줄고 있는 점, ⑤ 참여자의 취,창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점들은 단편적, 분절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상호 연관성속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 발제문에서 언급한 자활기업 지원내용 이외에 자활기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 자활기업 수의 감소 및 자활기업 창업 수의 감소, ② 5인미만 영세 자활기업에 대한 대책, ③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문제, ④ 집수리, 배송과 유사한 전국화가 가능한 업종개발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계성이 있기도 하고, 사안별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이 지난 10월 발표되었다. 자활역량평가 개편과 사회통합지표 개발과 적용이 담겨있고, 성장단계별 지원과 인센티브 등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다. 오늘 포럼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우리 자활사업이 ‘복합적 문제를 지닌 빈곤층의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사회통합 기능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빈곤예방’ 이라는 정책목표 전환으로 재설계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3 제2회 자활정책포럼 **토론4**

2023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박기홍 사무총장 (사)한국자활기업협회

1. 조사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 ‘지금까지 자활기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국단위에서 자활기업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연구자의 지적에 100% 공감하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되어 앞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자활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의 토대가 되기를 바람.

○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의 정책적 중요도를 더욱 강조하고, 나아가 자활기업의 활동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

2. 조사결과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 조사결과는 소규모 자활기업의 생존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소규모 기업들은 주로 운영기간이 3년미만(2020년 이후인정), 구성원수가 5인미만, 판로가 B2C(자체매장형태)인 자활기업들임. 이들은 주로 음식점, 유통판매점, 소규모 세탁청소업 등이며 자금조달, 인력확보, 판로개척, 사회적가치 실천 등 기업운영의 모든 면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보여지며, 보다 확대해 보면 사회서비스와 생산가공, 일부 청소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기업이 소규모 기업으로서 운영상 어려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음. (평균 유급구성원수 10.8명이나 사회서비스 제외하면 6.3명)

○ 인력확보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 우선 인력확보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활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인정요건 변경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확보의 어려움이며, 두 번째가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임.
- 첫 번째 수급자, 차상위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자활기업이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차상위자(탈수급, 탈차상위 포함) 최소 2인 이상을 구성원 및 운영주체로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인력이 퇴사할 경우 신규로 수급자, 차상위자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이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임. 자활기업에 인턴 또는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 추진중이나 효과 부족함. 근본적 방안으로 인정요건에서는 수급자, 차상위자 2인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요건에 이를 포함하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기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두 번째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큰 호응과 효과를 얻었고, 특히 자활기업은 창업자의 사업경험과 역량이 사회적기업에 비해 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활기업에게 전문인력 지원사

업은 매우 중요하며, 2022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구성원수 5인 이상이고 법인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기업의 경우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4인미만의 자활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자활기업은 일반예산을통한 지원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신규창업 기업들의 경우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영역(인사노무, 세무회계, 사무행정등)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행정 협동조합'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 구성이 필요함. 신규창업시 창업자금을 통해 공유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2년후 사업 운영 안정화를 통해 자부담 능력을 높이며, 이후 사업 성장으로 인원 확대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인력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 자활기업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종 및 이종 기업간 협업으로 규모화를 이루는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기업당 2인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금조달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및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장 필요하나, 정부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등)은 제출서류준비, 높은이자, 기업가치입증 어려움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반면, 규모 있는 기업의 경우 높은 임대료, 임대공간에 시설설치 부담 등으로 시설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나 정부정책자금은 융자한도가 낮거나, 해당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
- 소규모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자활기업 자조금융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자활기업들이 자체 출연한 자금에 보건복지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활기금 자조금융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활기업 소액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한국자활기업협회 경기지부의 경우 2022년부터 회원 기업들이 2억원을 출연하고, 경기도가 1:1 매칭으로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4억원의 자활기금 자조금융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총 3차에 걸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상환기간은 2년, 이율은 2~3%, 융자한도는 기업당 출연금의 최대 5배까지 무담보 무보증 방식으로 융자하고 있음. 자활기업협회에서는 경기지부의 사례를 확산하여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자조금융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의 1:1 또는 1:3 매칭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

- 규모 있는 기업의 자산화지원 융자사업은 토지 또는 건물 매입이나 건축, 큰 규모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융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상환기간도 길어 질 것임. 따라서 해당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자활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사업 연계시에는 정책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이자율과 자활기금의 대여이자율(1%)간 금리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사회적가치 실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자활기업은 생산협동공동체운동의 역사성을 이어 받아 태생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임. 수급자, 차상위자를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며 자활의 삶을 이루어 내는 기업이며,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기업이기 때문임. 조사결과에서 자활기업 운영에 중요한 사회적가치로서 취약계층 안정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달리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설립행위 자체가 사회적가치 실천이지만 이를 구체적인 지표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사례가 별로 없음. 자활기업들도 많이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SV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자활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이에 자활기업연구소가 2021년부터 자활기업을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올해말까지 현장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는 자활기업 설립부터 운영전반에 걸쳐 사회적가치 실천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활기업 윤리경영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우선구매의 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표 1〉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및 성과 측정지표]

가치	범주	영역	구분	지표	배점
자활 (35)	기업 목적	저소득층 일자리와 공공성	사회적 가치	1. 수급자·차상위자·취약계층 구성	10
				2. 기업의 공공성 실현	5
			사회적 성과	3. 탈수급자 · 탈차상위자 비율	10
				4. 일자리 성장과 취약계층 고용율	10
자립 (35)	사업 경영	경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5. 독립적 경영 관리	10
				6.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 수립	10
			사회적 성과	7. 구성원 근속연수 수준	10
				8. 구성원과 이익 공유 수준	5
협동 (20)	조직 운영	자발적 참여와 역량개발	사회적 가치	9. 주체적 참여와 의사결정	10
				10. 구성원의 역량개발	5
			사회적 성과	11. 구성원 성장 수준	5
연대 (10)	사회 관계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	사회적 가치	12. 지역사회와 협력	5
			사회적 성과	13. 사회공헌 수준	5

○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 효과성과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 기업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길수록, 법인일수록, 정부계약 비중이 높을 수록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개인사업자일수록, 매장, B2C업종일수록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주로 음식점, 유통판매점, 인원이 적은 생산가공업이나 세탁청소업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네트워크 및 협의체를 통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 기술/노하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사업적 성취를 높이는 계기되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함. 그러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조직이 내부적으로는 자활기업협회와 지부, 전국자활기업(배송, 돌봄, 주거, 청소)과 광

역자활기업, 업종 네트워크 등이며, 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임.

- 음식점, 유통판매점, 인원이 적은 생산가공업이나 세탁청소업 등은 소수인력이 주로 서비스(생산)업무에 집중되어 외부의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 기술/노하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사업적 성취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므로 기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협의체, 자활기업협의체, 광역자활센터간 네트워크(협의체) 활동을 통해 관계망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자활기업들을 파악하고, 자활기업협회 등 기업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3. 마무리하며

○ 최근 자활기업의 전체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자활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위기상황에서 이번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며, 조사결과와 분석내용에도 적극 공감함. 특히 생존단계의 자활기업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과 2차,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와 지원체계가 향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규모화&협업 지원 같은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동반된 자활기업 지원사업이 전국단위로 추진된 것은 불과 2년전(2022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자활기업 지원체계가 든든하지 못했음.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개발원, 센터협회, 기업협회, 광역자활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을 위한 연간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제안함.

memo